



잊지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 ▶◀ [이달의인물]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진주제일여고 2학년 원다혜
- ▶◀ [청소년뉴스] 수능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
춘천시, 내년부터 고교생 위한 하교택시 운영
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여주 교사 2명 구속
- ▶◀ [학교소식] 독도에 간 진주 동명고 학생들
진주중앙고, 전국 모의재판 지방대회 '우수상'
진양고 전국교교 합창경연대회 금상
명신고 3학년 박성훈 학생 국무총리상 수상
- ▶◀ [멋쟁년멋반] 명신고등학교 2학년10반편
《신정》삼현여고 2학년 7반편
- ▶◀ [특집] 달걀-생리대 포비아
- ▶◀ [반보드 Chart] 명신고 2학년 2반 VS 경해여고 2학년 3반
- ▶◀ [고발, 이의 있습니다⑥] 학생부종합전형의 허상을 고발한다
- ▶◀ [틴틴이슈] 창원 N여고 몰카 파문!
건국절 논란 그 숨은 진실!
- ▶◀ [필통에게 물어봐] FACTCHECK 원작 동화의 충격적인 진실들?
- ▶◀ [HOT 피플] 진주교등학교 2학년 마현민
- ▶◀ [학교VS학교] 넌네는 어떻게 등교하니?
- ▶◀ [진주투어] 에나몰로 새로운 법신? 근데 왜이리 썰렁 하지!
- ▶◀ [JOB을 잡아라] 17년차 베테랑 문정식 버스 기사를 만나다
- ▶◀ [동아리 탐방] 진주중앙고등학교 요리동아리 SALT!
- ▶◀ [19금 토크] 여러분은 어떤 성적 패티시를 가졌나요?
- ▶◀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수의학과를 찾다
- ▶◀ [기고] 나이주의에 저항하자!
- ▶◀ [소개합니다] 진주지역 교교 학생회장단 모임
- ▶◀ [필통주장] 토대체 왜 우리 머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요?
- ▶◀ [취재수첩] 휴대전화 장기간 압수는 현실을 무시한 처벌
왜? 여학생이 다니면 여학교가 되는 것일까요?
10대들의 화장이 문제라고?
남강유등축제 창작등이 수행평가로 둔갑해
여러분의 향문은 안녕하십니까?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등 2명/ 2등 20명 당첨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얀메디컬이 있습니다

하얀메디컬은 5명의 전문의가 전문과목별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은 필통과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W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입원병동을
운영합니다.



2017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쿵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장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진주제일여고 2학년 원다혜

“작곡하고 직접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Q. 자기소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1반 원다혜라고 합니다.

Q. 언제부터, 왜 작곡을 시작하게 됐는지?

중학교 3학년에 시작하게 됐어요. 타의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제 음악을 만들고 직접 노래 부르면서 제가 원하는 풍의 음악, 저만의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피아노 음악, 뉴에이지 음악을 먼저 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가사를 삽입해 대중가요를 쓰기 시작한 건 3학년 2학기에 들어선 후부터인 것 같아요.

Q. 작곡하기 전에 미술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미술에서 음악으로 바꾼 건지?

원래 노래방은 눈길도 주지 않을 정도로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미술을 하면서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생겨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가 슬럼프에 빠진 저를 끌고 노래방을 갔었는데, 가만히 음악을 듣고 부르다 보니 그 매력에 깊게 동화돼 가고 있었어요.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당시 존경하던 선생님과 오랜 상담 후에 진로를 틀어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작곡 과외를 하며 기본적인 화성학의 틀을 잡아둔 후, 현재는 보컬 학원을 다니면서 기타와 드럼과 같은 기악을 배우고, 작곡도 함께 겸하고 있어요.

Q. 전문 보컬 학원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제가 다니는 학원은 구 법원 건너편에 위치한 부산뮤지컬음악학원이에요. 레슨 종류는 보컬, 기악, 작곡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입시반, 오디션반, 취미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저는 오디션반을 다니면서 다양한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은 따로 목표가 생겼기도 한데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주어진 오디션에 전부 참가할 여력이 없네요. 밝고

재미있는 학원생들 덕분에 학원의 분위기는 무지 좋은 편이에요.

Q. 어떤 장르를 주로 작곡하는지?

다방면으로 작곡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발라드를 자주 접해서 그런지 작곡한 곡의 장르는 발라드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은 힙합? 확고하게 개인적인 취향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재미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 스타일이 힙합이므로 더더욱!

Q. 그 외 작곡이나 노래를 하면서 하는 다른 활동은 없는지?

현재 학원에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여기저기 버스킹을 다니고 있어요. 오는 9월 말에 로데오거리에서 저희 학원 이름 걸고 공연하니까 꼭 보러오세요!

Q. 존경하는 작곡가나 가수가 있다면?

보지만 해도 설레고 취향저격의 아이돌 노래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가사 마디마디, 혹은 멜로디만으로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옛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이죠. 싱어송라이터인 윤종신님과 고 김광석님, 그리고 박효신님! 작곡가 로코 베리와 작사가 김이나님... 제가 무지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들이에요.

Q. 작곡은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능이 있다면 좋죠. 키울 수 있는 재능도 있지만 한계를 가진 재능도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재능보다 노력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해요. 다만 재능과 끼를 타고난 사람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대하는 자세에 열정과 끈기만 있다면 뭘 못 하겠어요?

Q. 작곡을 하는 동안 가장 좋았을 때와 힘들었을 때?

곡을 만들다 의외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막힐

Q. 음악을 하고자 하는데 망설이는 친구들에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작곡 같은 경우엔 2년 정도는 꾸준히 공부해야 걸음마라도 시작할 수 있듯, 마음을 쏟을 시간에 대한 자신만 있다면 시작하는 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되든 안 되든, 도전해 봐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물론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는 도전은 도전이 아니잖아요.

Q.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족하지만 한 제가 감히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스스로 흥미가 없고 열정이 없다면 자신이 걸고 있는 길을 고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셨어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라고,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얘기하지만 결국 그 미래는 현재의 내 모습속에서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싱어송라이터 원다혜로 살고 있으면 이미 미래의 꿈은 다가오지 않았을 뿐 이루어진 거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을 아티스트에 걸맞게 보냅시다. 친구들~ 힘냅시다.^^

[취재/ 최서우(진주제일여고2)기자]

“멜론 차트 올인! 1위부터 10위까지 제 앨범 수록곡들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Q. 한 곡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만드는 과정은?

하루 안에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지죠. 제 생각은 곡의 퀄리티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 작곡할 때는 피아노와 휴대폰의 녹음 기능만을 가지고 작곡했었는데, 지금은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큐베이스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음을 하나하나 컴퓨터에 찍어서 하는 건데 악기 종류도 다양하고 훨씬 편리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곡을 한 후 믹싱까지 완료하면 악기 소리가 무지 예쁘게 들려요.

Q. 대회 참가하거나 수상 경험은?

아직까지 작곡 대회는 용기가 없어 나가 보지 않았고,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컬 대회에서 장려상, 국제대학교에서 주관한 피아노 콩쿨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때라든지, 시험기간이나 마감 기간이 겹치게 되면 그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중도 포기하는 일 없이 곡을 완성시켰을 때의 그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부분, 일명 킬링 파트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루 종일 들어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Q. 앞으로의 진로와 꿈

자기가 쓴 곡을 직접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오디션반을 간 이유도 아티스트가 되어 내 개성이 담긴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티스트 육성 전문 기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평생의 목표예요!

Q. 작곡가가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멜론 차트 올인! 1위부터 10위까지 연이은 제 앨범 수록곡들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단 1초라도 좋은니까, 꼭 한 번 해보고 싶어요.



[필통칼럼] 학교, 이제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고 있을 뿐이다.

학교폭력, 왕따...
그래, 미안하다.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야

그러나
친구들에게 화를 품지도
친구들을 괴롭히며 우월감과 만족감을 가지
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말자.

친구는 친구다.
친구는 서로 이해해 줘야 하고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그 친구 또한
나와 같은 세상, 나와 같은 힘듦과 고통을
함께 지고 가는
그저 또 다른 나란 말이다.

왜 우리집은 가난하냐고?

왜 우리가족은 말이 없냐고?
왜 공부만 하라고 하냐고?
왜 대학에 가야 하냐고?

불평만 하지는 말자.
나를 둘러싼 환경에 굴복하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너무나 많이 남았다.

비록 학교에서
누구나 바라는 일들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비난받고
놀림 받고
구박 받고
명해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날이 남아 있다.

그 사회에서
또 일등을 바랄지는 모르지만

일등이 안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이야 애겐 쓰레기 같은 현실이더라도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누군가에게는 공부나 지식
자신이 되고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욕이나 폭력
또는 비관과 패배의식이
내 미래의 자산과 무기가 될 수 없다.

잊지 말자
내 인생은 아직 걸음마일 뿐이다.
학교를 나가서
뛰어 다닐 찬란한 내 인생을 위해
적어도
지금 현재
나에게 부끄러운 나를 만들지는 말자



수능개편안 Q&A. 절대평가·시험과목 어떻게 달라지나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새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치러진다.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고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Q 왜 개편하나.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2018학년도부터 일선 중·고교(초등학교는 2017학년도)에 연차적으로 반영한다. 교과서 분량이 20%가량 줄어들고, 수업이 토론을 비롯한 학생 참여형으로 바뀐다. 문·이과 구분도 없어진다. 2021학년도 수능은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이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이다.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수능 시험을 개편한다.

Q 개편의 주요 내용은.

▲ 교육과정에 따라 그간 배우지 않았던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예를 들면 기존에 일반사회·지리·윤리·역사 등 따로 나뉘어 있던 사회과목이 주요 개념 중심의 1개 과목으로 통합되는데 수능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된다. 절대평가 과목도 확대된다. 정부는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1안'과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Q 몇 과목을 보게 되나.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탐구(사탐·과탐·직탐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등 모두 7과목이다. 다만, 교육부는 현행과 똑같이 7과목이라고 밝혔지만 통합사회·통합과학은 학교 현장에서는 별개로 가르치는 과목이다. 특히 통합사회가 기존의 일반사회, 지리, 윤리, 역사 등 4개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과학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4개 과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된 과목임을 고려하면 수험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경우 기존 중학교 수준의 내용 60%, 고교 1학년 수준의 내용 40%로 구성된 데다 절대평가인 만큼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Q 문·이과가 통합된다면 수학과 통합사회·통합과학은?

▲ 수학은 범위에 따라 지금처럼 가형과 나형으로 나뉜다. 올해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의 경우 가형에는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등이 포함되고 나형에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포함된다.

2021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시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가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만큼 수학 가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사회·통합과학은 1학년이 배우는 공통과목이므로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Q 배점과 문항 수는 지금과 같은가.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목별 출제범위와 문항 수, 배점, 시험 시간 등은 교육부가 후속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Q EBS 연계율은 어떻게 되나.

▲ 현행 70%인 연계율을 축소·폐지하는 '1안',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2안'이 나와 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연구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춘천시, 내년부터 고교생 위한 하교택시 운영



강원 춘천시는 내년부터 청소년 교육환경 지원 사업의 하나로 고교생을 위한 하교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8월8일 밝혔다. 하교택시는 고교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등교버스와 등교택시를 하교 시간대까지 확대하는 것. 시는 밤늦게 야간자율학습을 끝낸 고교생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하교 시간대 학교에서 집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거나 오래 걸리는 학생, 거동이 불편한 학생,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학생이다. 학교별 하교 시간에 맞춰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가 학생들을 집까지 데려다 준다. 요금은 등교버스와 같은 1인당 1000원. 초과 금액은 춘천시가 지원한다. 우선 시 외곽에 있는 강원고와 춘천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10~12월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모든 고교로 확대한다. 현재 등교버스는 1일 평균 8개 고교에서 1100명, 등교 택시는 11개 고교에서 160명이 이용하고 있다.

여학생 수십명 성추행 여주 교사 2명 구속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여주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7월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아무개(52), 한아무개(42) 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사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 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7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유통중인 모든 생리대 유해성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인체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생리대와 관련해 현재 유통 중인 전 품목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릴리안'(깨끗한나라주) 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우선 확인하게 된다. VOCs는 벤젠·포름알데히드·스틸렌 등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나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생리대 56개사 896 품목(제조 671, 수입 225)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VOCs 등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104종 평가 조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앞당길 예정이다. 원래 완료 예정은 내년 11월이지만 더 당기겠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나오는데로 소비자에게 순차 공개하게 된다. 최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에 대해서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VOCs 검사 등 인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내년에도 계속

정부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인 30억원 가량으로 편성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3개월분의 생리대(108개)를 지급하고 있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5만6천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11~18세 청소년 19만8천명, 지역 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 학교에서 커피 판매 금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학교 내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 빈도를 줄이고자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월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초중고교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중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하던 커피도 팔 수 없게 된

다. 식약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개교 19년, 현실과 따로 노는 2017 학교



KBS 드라마 '학교' 시리즈가 첫 전파를 탄 것은 새 밀레니엄을 목전에 둔 1999년이였다. 그 전까지 방송됐던 청소년 드라마가 건전한 사춘기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것과는 달리 '학교'는 교사의 체벌이나 왕따, 학교폭력 등 학교의 이면을 가감 없이 그려 청소년 드라마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약 20년이 흘러 일곱 번째 버전으로 시청자들을 찾은 KBS 2TV 월화드라마 '학교 2017'은 아직까지 썩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전작들과 달리 이번 시리즈는 주 시청층인 10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가볍고 밝은 시도를 더했다. 주인공 라은호 역에는 엠넷 '프로듀스101' 출신 걸그룹 구구단의 멤버 김세정이가 캐스팅됐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20년간 '학교' 시리즈를 관통하는 주제인 학교의 현실 면에서 정작 10대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있다. 한 달에 3번씩 치르는 모의고사, 식탁등수를 학교 벽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모습, 성적순 급식 장면 등은 오히려 현실을 지나치게 드라마틱하게 드러내 공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포털사이트 댓글에도 극 중 묘사된 학교 현실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올라온다. '학교' 시리즈의 힘은 변하는 듯 변하지 않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늘 방송 시점에 맞춰 새롭게 제시하는 데 있었다.

내년 중고생들도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중고생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중고생들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뒤 폐렴 등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 전파가 잘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8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과제인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국가지원' 사업의 이행 차원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생 277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2019년에는 중학생(146만명), 2020년에는 고등학생(182만명)으로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독도에 간 진주 동명고 학생들



진주 동명고등학교 독도동아리 학생과 교사 20명은 지난 8월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광복 72주년(15일)을 앞두고 나라사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도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동아리로 독도 바로 일리기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난 1950년 대 일본의 침략로부터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생존자 중 한 분인 정원도 어른신에게 당시의 상황을 듣기도 했다.

진주중앙고 전국 모의재판 지방대회 우수상



진주중앙고등학교(교장 이동환)가 모의재판 경연대회 부산·울산·대구·경상권 지방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했다. 진주중앙고는 지난 8월9일 법무부 주관으로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부산·울산·대구·경상권 지방대회에서 동아리 '가온' 팀이 민사재판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4년 연속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대상 및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진주중앙고는 또 다시 우수상을 수상해 청소년 모의재판에서 우수한 학교의 전통을 잇게 됐다. '가온' 팀은 이날 '사교육에서 내신등급 향상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특약 조항의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뤘다.

경진고 매직 사업 선정 현판식

진주 경진고등학교는 8월23일 오전 학내 본관에서 '2017년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사업' 선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오세훈 교장의 경과보고와 교내 난타 동아리의 축하 공연,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남정만·서은애 시의원, 학부모, 학생, 학교관계자, 동문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매직 사업은 직업계고의 학교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전국 590여 개 특성화고와 마이스티고 중에서 150개교를 선발해 3년간 매년 1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에서는 경진고를 비롯해 진주기계공고, 창원공고, 창원기계공고, 경남항공고, 거제여상, 사천여고, 창녕제일고 등 8개 학교가 지난달 최종 선정됐다.



경진고는 △실전수업 흥미도 △인성 기초 학력 △성공적 취업 지원 등 6개 프로그램 중 5개 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경남과학고 3팀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7' 수상 쾌거

경남과학고등학교가 국내 과학탐구대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HANHWA SCIENCE CHALLENGE 2017'에 3팀이 출전하여 금상, 은상, 동상을 각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화그룹이 주최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2011년 첫 대회 이래 'Saving the Earth'를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7' 본선 대회는 지난 7월24일부터 25일까지 한화인재경영원에서 진행됐다.

경남과도 정유나·조민지(2학년) 학생팀(지도교사 유상진)은 '시추선의 효율 증진, 그 해답을 힌다리새 우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기존의 시추선이나 드릴 심의 위치제어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문제점을 힌다리새우의 유영을 모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김혜지·백지수(3학년) 학생팀(지도교사 안선경)은 은상을, 또 이승영·이재원(3학년) 학생팀(지도교사 이원철)은 동상을 수상했다.

개양중 '제자사랑 교직원 장학회' 운영

진주 개양중학교(교장 한수희)는 교과 성적과는 관계 없이 학교생활에서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

생들을 격려하고자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 부임하는 교직원들도 장학회의 뜻에 흔쾌히 동참하여 제자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학금은 1학기 말(여름방학 선언식)과 2학기 말(종업식 및 졸업식)에 지급하며 대상 학생과 금액은 장학금선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앞서 제자사랑교직원장학회는 2017년 여름방학 선언식을 맞이하여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3학년에게는 진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졸업식 때 지급할 계획이다.

진주시 청소년들 끼·열정 뽐내

진주시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뽐내는 행사인 '2017년 상반기 청소년동아리 성과발표회'를 지난 5일 오후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댄스, 밴드, 마술, 노래 등 12개 동아리가 참여해 평소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멋진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또한 행사에서는 모범청소년 5명과 유공 자원봉사자 2명에게 진주시장 표창패가 수여됐다.

한편 매년 상·하반기로 개최되는 성과발표회는 수련관 소속 동아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상반기 동아리 활동은 지난 1월부터 동아리 모집을 시작으로

진양고 전국고교 합창경연대회 금상

진주 진양고등학교(교장 강태석)가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전국고교 합창경연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값진 금상을 수상했다. 진양고등학교 남녀 혼성 합창동아리 '소리어울림'은 전국 각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9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탁월한 기량과 실력을 발휘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주말은 물론 매일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까지 활용하여 모든 단원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하였으며 특히 임시 준비로 바쁜 고등학교 3학년 단원들도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진양고등학교 합창동아리 '소리어울림'은 지난해 도내 중등학교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66회 개천예술제 합창 고등부 대상을 수상하는 등 도내 합창 분야에서는 이미 현상의 하모니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로보컵 창의코딩대회 진주 학생들 두각



진주레고센터는 지난 8월19일 열린 대전국립 한밭대에서 열린 '제1회 로보컵 창의코딩대회'에서 진주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출전한 진주3팀(경상대 사

대부고1 박수민, 진주중1 최정원, 제일중1 신현식)이 로봇축구 부문 GEN II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갯(GOD)진주팀(대아중1 박우성, 동명고2 이새람, 대아중3 박성국)과 남강팀(동명고 2김동욱, 명신고2 박성혁, 홈스쿨링 강량훈)이 레스큐 부문 라인 세컨더리 종목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또 논개팀(평거초6 정준호, 신진초4 이태희, 내동초4 김선재)이 레스큐 부문 베이직 종목에서 2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는 다음달 호주에서 개최되는 호주 로보컵 오픈 대회와 12월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퍼시픽 로보컵 대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명신고 3학년 박성훈 학생 국무총리상 수상



지난 7월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0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진주 명신고 3학년 박성훈 학생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가 같이 있는 사계를 착용할 때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돌려서 쉽게 착용하는 반자동 손목시계'를 출품해 대회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9400점의 작품을 출품해 2차에 걸쳐 발명품 헌을 심사와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160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인중식, 어울림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활동을 진행해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진주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 관련 축제 및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진주 명석중 신나는 '썩썩 캠프'

진주 명석중학교가 지난 8월7일부터 3일간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썩썩(SOCSOC) 캠프'를 운영하느라 연일 아이들의 웃음과 함성으로 떠들썩했다. 썩썩(Story Of Creativity, Story Of Camp) 캠프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재능기부 캠프다. 방학 중 소외지역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며, 대학생이 방학 중 3일간 전국 초·중학교에 찾아가 '나눔, 소통, 배움, 도전, 재미, 치유'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특히 이번에 명석중학교를 방문한 '청춘누리봉사단'은 수도권 대학의 연합동아리로 다양한 대학 및 학과의 학생들로 구성, '나만의 외식업 기획하기', '역전재판', '15컷 영화 만들기' 등 진로와 연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농촌 아이들의 창의 향상은 물론 진로탐색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진주교육청 전 직원 백혈병 학생 돕기 성금 모금

진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백혈병 투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돕고자 성금을 모금했다. 직원들은 지난 7월 27일 신문 보도를 통해 지수초등학교 학생 윤 모 군의 안타까운 사연을 처음 접하고 함께 뜻을 모아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긴 시간을 두고 모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비롯해 거의 전 직원이 참여해 윤 모 학생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에 봉사활동 단체 '동글레회'에서도 일정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알리와 개인별 모금액과 함께 총 200만 원의 금액이 8월7일 윤 모 학생 아버지에게 전달됐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각 학교에 윤군의 사정을 알리고 저금통 모금을 통해 정성을 모으고자 계획하고 있다.

우람종합건설 이수영 대표, 경남과학고 장학금 기탁

하동에 위치한 우람종합건설(주) 이수영 대표이사(경남과학고등학교에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했다. 지난 2016년부터 경남과학고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수영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진주시 금산면에 위치한 진주사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발전기금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경남과학고 오세현 교장에게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경남과학고는 이 기금을 학교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금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슈특독①] 창원N여고 몰카 파문!

경남교육청, ‘몰카 파문’ A여고 교장·교사 중징계 의결

창원지역 여고서 교사가 교실에 몰카 설치
몰카 논란 여고 교장 "좋은 대학 못가면 성을 생활수단으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8월23일 오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특강 중 성희롱 발언을 한 창원 A여고 B교장을 '해임', 교실 내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한 C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B 교장은 지난 2016년 4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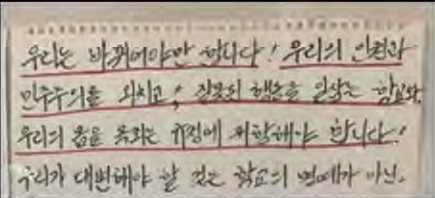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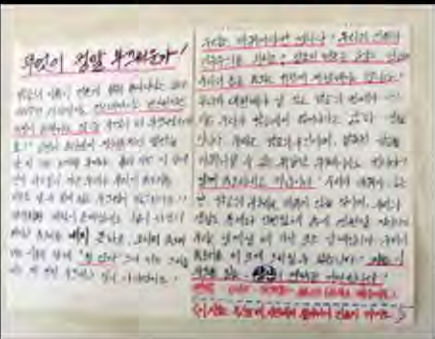
학년 학생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수도 있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해임'이 의결됐다. 같은 학교 C 남자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담임을 맡은 교실 앞 분필

통에 학생들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했다가 발각되어 물의를 일으켜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교원징계위는 또 교장·교사와 관련된 민원 접수 후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본청 D 장학사는 견책으로 의결했으나 표창 공적으로 감경돼 '불문경고', E 장학사

는 '불문'으로 의결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불문 경고의 경우 1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른 시일 안에 교원의 성 비위 근절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몰카·교장 부적절 훈화 여고에 학생들 ‘교칙 개정’ 대자보



〈학생들이 직접 쓴 대자보〉

남고사 몰래 카메라 설치와 교장의 부적절 훈화 사실이 알려진 여고에서 이번엔 학생 인권 등을 위한 교칙 개정 움직임이 대자보를 통해 일고 있다.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가?'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치고, 잘못된 행동을 일삼는 학교와 우리 몸을 옥죄는 규정에 저항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어 "우리가 대변해야 할 것은 학교 명예가 아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겪는 삶과 생활"이라며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고, 잘못된 학교를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학교 부조리는 바뀌지 않고, 우리 생활도 통째로 인권 침해 속에 영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자보에는 "귀 밑 7cm로 두발을 짧게 자르는 것, 원색 또는 형광색 신발·가방을 신거나 매지 않는 것 등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17일께 차례로 이 대자보가 붙기 시작하자 학교 측은 한 달간 학생들 의견을 수렴, 오는 9월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몰래 카메라 사건이 발생한 뒤 평소 교칙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다른 학생들이 갖고 있던 불만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두 발이나 치마 길이 등 생활 규정 전반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학생·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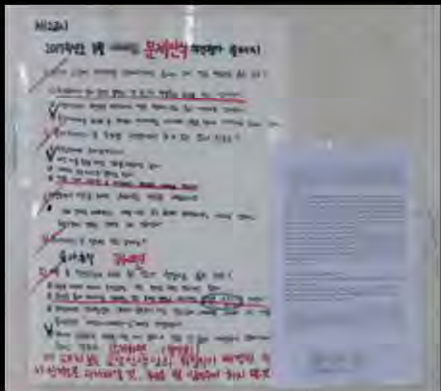
앞서 지난 6월 담임 교사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2학년 한 학급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칙 개정 요구가 뒤따르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해당 학급 명의의 대자보를 내고 "우리는 몰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마치 우리 반이 주도해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판단은 금해달라"고 대자보를 통해 전했다. 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피해 학생들은 '2017학년도 8월 XX여고 문제인식 학력평가 문제지'라는 제목으로 5가지 문단을 제시하며 교사의 태도를 재차 꼬집었다. '교사가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행동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질문에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학생이 카메라를 꺼내며 교실로 찾아가 카메라를 달라고 한다'라는 항목에 정답(체크) 표시가 돼 있다. 명백히 오답임이 답변은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정답(학생들에게 설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한 뒤 학생들 동의를 받고 설치한다)에는 밑줄 표시가 돼 있다.

일련의 사건과 대자보 등을 통한 학생들의 문제 제

기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학생들이 소속히 회복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학교는 남고사의 몰래 카메라 설치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교장이 1학년 학생들에게 훈화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성을 팔게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필통편집국]



〈학생들이 직접 쓴 대자보〉

[이슈특독②] 건국절 논란 그 숨은 진실!

건국절?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라 친일파는 대한민국 건국공신이고 주체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하면서 건국절 논란에 쐬기를 박았다. 건국절 논란은 지난 2006년 뉴라이트 계열의 이영훈 당시 서울대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처음 공론화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붙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 8월15일 건국 되었다는 것을 공식화 했었다.

왜 끊임없이 1945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일까? 이것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단 칼에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임시정부와 광복까지 있었던 처절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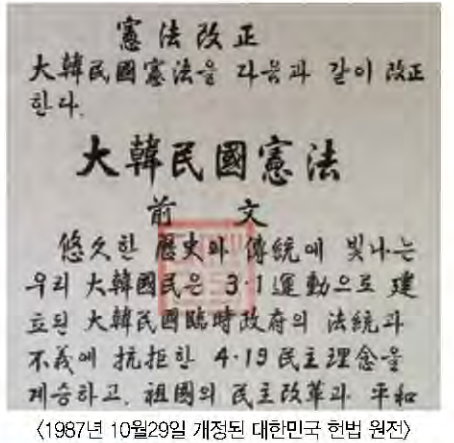
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식때 이렇게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탄생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명백히 대통령과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헌법뿐 아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도 똑똑히 명시하고 있다.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더구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조차도 정부수립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인정한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왔던 이러한 명백한 임시정부의 법통이 단 한차례 끊긴다. 바로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1962년 12월 5차 개헌 헌법전문에서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문장 대신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송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에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쿠데타적 조문으로 바뀌어 진 것이다. 결국 이를 바로 잡은 것이 1987년 9차 개헌이다. 왜, 이런 얼척 없는 건국절이 튀어 나오는 것일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친일파로 낙인 찍히고 벗을 수 없는 굴레를 안은 이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로 세박되는 것, 친일범죄에 면죄부를 받게 만드는 손쉬운 방법이 곧 대한민국 건국절이 되는 꼴이다. 국민들이 동의할 리 없다. 기본적인 역사인식만 있다 해도 부정을 넘어 분노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렇듯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논란을 키울까? 그럴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엔 헌법을 다시 뜯어 고쳐서라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써그리 지우고 싶어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분명 그럴만한 힘이 있다. 여전히 그럴만한 권력

과 돈이 있다. 맞는 말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엔 미래가 없다. 정리되고 청산되지 못한 역사를 안은 채 잊고 있는 동안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패악질 당하고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 현대사의 민낯을 똑똑히 바라보고 가르치고 세겨야 한다. 암살이나 밀정, 군함도를 보며 위로 받고 스크린 속에 멈춰 있기엔 이 시대의 아픔이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다.

[필통편집국]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원전〉



〈1921년 임시정부 신년축하식 - 대한민국 3년 1월 1일이라고 표기됨〉

大韓民國三年一月一日 臨時政府及臨時議政府新年祝賀式紀念攝影

[학교VS학교] 너네는 어떻게 등교하니?

학교의 아침 등굣길 풍경을 들여다보다

건물과 운동장, 학생들과 선생님, 우리 학교의 풍경은 그다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오래시간 학교를 다니며 우리는 서로 다른 추억을 만들고 모교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을 떠올린다. 같은 듯 보이지만 각 학교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자신들만의 색깔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학교대학교'는 진주에 있는 각 학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며 지나쳤던 자신의 학교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다니는 다른 학교의 모습도 찾아보는 재미있는 필통의 연재기획이다. 이번호에는 각 학교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따라가 보았다. 아침 일찍 지각을 피해 달음 치는 등굣길에 얹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보자.

진주여자고등학교

상봉동에 있는 진주여고의 등굣길은 대부분 버스를 타고 오는 여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버스정류장과 학교는 매우 가깝다. 그런데 조금은 특별한 풍경이 있다. 바로 길지 않은 진주여고 앞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2개가 나란히 있다는 것이다.

어느 곳에서 내려도 학교정문과는 그리 멀지 않다. 진주여고만을 위한 배려 같기도 하고 주민들을 배려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진주여고에는 같은 이름의 버스정류장이 2군데 있다.



경해여고(여중), 선명여고

남강댐 바로 아래 자리 잡은 경해여고와 여중, 그리고 선명여고는 크게 보면 하나의 학교처럼 한 자리에 모여 있다. 학교 재단이 같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같은 학교나 마찬가지로 같지만 등굣길은 학생들 스스로도 구분해서 다닌다.

250,280,290번 등 버스가 학교 정문에 내려준다. 아자 마치는 시간은 아침처럼 정문까지 버스가 오는데 그 외는 경해여중 정문을 통해 진양호 삼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간다. 경해여고 입구는 조경이 이쁘게 되어 있어 등굣길 학생들을 기분 좋게 한다.



제일여자고등학교

제일여고의 등굣길은 학교가 조금 높은 선학산 자락에 위치한 관개로 오르막이란 것이 특징이다. 여학생들이 3년동안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니 아침운동은 제대로 되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다리에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 우스개소리를 듣는다. 제일여고는 정문과 후문이 완전 정반대에 위치해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후문을 이용해 등교를 한다. 후문이 좀 더 가파른 경사를 보이고 정문은 특이하게도 진입로 외엔 특별한 교문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대아고등학교(대아중)

대아고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문이 아닌 후문을 이용한다. 정문은 주로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외엔 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정문쪽 차량 진입 자체가 굉장히 힘든 도로구조를 갖고 있다보니 등교시간 학생들을 태워주는 부모님들의 차량도 모두 후문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대아고 후문쪽은 2차선도로이고 많은 자전거통학 학생들까지 몰리다 보면 아침등굣길 후문앞은 매우 복잡하다. 예전 필통에서도 이곳 도로가 위험하다고 기사가 나간적이 있을 정도다. 대아고는 후문 양쪽에 버스정류장에서도 꽤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북쪽의 경우 거의 50도 가까운 급경사를 올라와야 되고 후문앞에는 수십 개의 계단이 날마다 대아인을 맞고 있다.



명신고등학교

예전 명신고등학교는 초전의 허허벌판에 외로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명신고는 정문외엔 등굣길이 없다. 뒤쪽 후문은 바로 산이기 때문이다. 명신고등학교는 버스노선개편 전에는 정문에 내려주는 버스가 많았으나, 개편 후 정문에 내려주는 버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개편 전에 비해서 불편해졌다.



삼현여고(여중)

삼현여중,고의 등굣길은 진주에서 보기 드물게 좁은 상가 골목을 걸어서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 삼현여중은 가깝더라도 여고의 경우는 거의 400미터를 걸어야 한다. 더구나 허기져 배가 고플 땀 여기 저기서 날아드는 음식 냄새가 여고생들의 등학교길을 힘들게 한다. 삼현여중과 여고는 특이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2층에 다리로 두 학교가 연결되어 있다. 일명 '구름다리'라고 하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이채롭다.



중앙고등학교

중앙고는 학교정문앞에 바로 도로다. 그럼에도 신호등이 없어서 아침마다 학교 지킴이 할아버지가 횡단보도 앞에서 학생들을 인솔한다. 중앙고와 같이 교문앞이 바로 도로인 진주남중이 있는데 남중은 오히려 4차선도로에 신호등도 있고 인도도 넓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반면 중앙고는 2차선 도로에 차량은 많고 복잡하지만 도로구조상 신호등 설치가 쉽지 않아 무단횡단도 많고 학생들의 등굣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사대부고(부중)

버스정류장에서 학교까지 가장 먼 곳이 사대부중,고다. 물론 등하교 시간에 버스는 특별히 학생들을 위해 학교까지 운행을 해 준다. 딱 그때 뿐이다. 그래서 버스를 놓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 외에 시간의 경우는 거의 1킬로미터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로수길을 산책삼아 걷는 것도 사대부중고 학생들에게는 추억이지 싶다. 예전엔 기차길을 나란히 걷는 운치도 있었는데 진주역이 이전하면서 이전 기차를 볼 수는 없게 되었다.



진양고등학교(진양중)

진양고등학교는 충무공동주민센터 그리고 LH5단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내려며, 학교까지의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다. 버스노선개편 전보다 버스가 좀 많아지긴 했으나 아직 부족한 편이다.



동명고등학교(동명중)

동명중,고는 들뜬 논 한가운데 세워진 학교다 보니 정문과 후문 양쪽으로 진입로가 나 있고 그 길을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다. 그 길로 차량과 자전거 학생들이 짧은 등교시간에 함께 이용하다보니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밤에는 가로등이 부족해 어둡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 그리고 가로등이 더 설치 되길 바라는 학생들의 희망은 언제쯤 현실이 될까?



진주고등학교

대부분 학생들은 정문을 통해 등교한다. 버스에서 내리면 진주중학교를 지나 한참을 걸어야 한다. 아침이면 갈색 교복의 행렬이 일렬로 이어진다. 진주고는 오랜 전통을 생각하면 교문이 뭔가 좀 특별하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 너무 평범한 현대식이라 조금은 의외다. 교문을 앞두고 길가 중학교 담장엔 늘 축하 프랜카드가 걸려 있다. 아침마다 교문 앞에서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또 진주고만의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교문앞에서 여러명의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다. 옛날 영화속 장면 같은 느낌이다.



경진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구보다 힘든 등굣길을 걷는 듯 하다. 버스에서 거리도 400여미터, 정문으로 오르는 길목의 오르막도 만만치가 않다. 경남 정보고도 한참을 걸어야 학교에 들어설 수 있어 편한 등굣길은 아니다. **자동차고**와 **경남예술고**는 버스정류장과는 가깝지만 버스가 자주 없어 타이밍을 놓치면 오래 기다리거나

나 답답한 마음에 명신고에서부터 장거리 산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예술고**는 많은 학생이 가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등굣길 걱정은 없었다. **진주기공**은 정후문으로 나눠서 등교하고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편이다. 아침마다 교문앞에서 선생님이 생활지도와 하고 가끔씩 캠페인도 펼친다.

[달걀 포비아 속 생각 하나]

베테리케이지를 아시나요

여러분 밥상에는 어떤 달걀이 올라옵니까?

암탉이 감금되어 사는 곳, 베테리케이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알 낳는 닭 6400만 마리, 하루 3800만개의 달걀을 낳는다. 현재 산란계 사육 방식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베테리케이지(Battery cage) 시스템이다. '베테리케이지'는 동물을 사육하는 시스템의 하나지만 대표적으로 산란계 사육 시스템으로 불린다. 대부분 창문이 없는 큰 창고 안에 일정한 크기의 철창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고, 보통 가로, 세로 50cm의 공간에 암탉 6~8마리가 사육된다. 암탉 한 마리에게 주어지는 공간은 0.05제곱센티미터 정도다. 쉽게 말해 A4 용지 2/3 크기다.

강제 털갈이·부리 절단 A4 감옥속 암탉 비명

알을 낳는 닭 '산란계' 한 마리가 그 안에서 평생을 산다. 하루에 달걀 한 알씩 낳다가 2년도 안 돼 죽는다. 공장식 양계장이 아니라면 20~25년을 살았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 닭들은 모두 암탉이다. 부화장에서 태어난 수탉아리들은 태어나자마자 폐기처분된다. 암탉아리라고 행복한 건 아니다. 일주일 이 지나면 부리가 잘린다. 보통 전기절단기를 이용해 부리 끝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자른다. 이 과정에서 조직과 신경이 손상된다. 공장식 사육장에서 닭이 부리로 털을 고르거나 바닥을 쏘는 등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없어 다른 닭의 몸을 쏘아 죽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리자르기가 행해지고 있다. 영국·스웨덴·노르웨이 등에선 부리자르기가 법으로 금지됐다.

사육장은 슈퍼마켓의 3단 진열장처럼 생겼고, 닭들은 각 칸에 세 마리씩 들어가 껍떡거린다. 한 칸의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20cm를 넘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베테리 케이지'라고 불리는 공장식 닭장이다. 국내 산란계의 90%이상은 이런 베테리 케이지에서 사육된다.

닭이 산란을 시작하고 1년 뒤, 털갈이할 때가 되면 알이 뜰해진다. 털갈이(환우)를 빨리 마치기 위해 '강제 환우'를 시킨다. 5~9일 동안 밥을 굶기고 빛을 차단한다. 닭의 몸무게가 25~30% 빠진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폐사하는 닭이 속출한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 12~16주 걸리는 털갈이가 6~8주 안에 끝나면서 달걀을 빨리 얻을 수 있다. 강제 털갈이는 지극히 비인도적이다.

베테리 케이지에서 자란 닭은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이 퍼지기 쉽다. 대량발생하는 배설물은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를 증가시켜 폐렴 같은 호흡기장애를 일으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등 2000년대 들어 네 차례나 발생했다. 자연상태의 닭은 매년 알을 20~30개씩 꾸준히 낳으며 20년 이상을 산다. 반면 공장식 산란계는 2년째 산란능력이 퇴화돼 도계장으로 이송된다. 한 마리에 700~800원에 유통업자에게 팔렸다. 질긴 고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사간다. 이런 산란계가 대한민국에서 6400만 마리가 산다. 이미 닭들은 일생 동안 500~600개의 알을 낳았다. 그리고 매년 2446만 마리가 도계장에서 숨을 거둔다.

베테리 게이지 사육 금지는 세계적 추세

어쩔 수 없지 않나? 아니다. 유럽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지난 2012년 A4 반 장 크기 공간에서 계속 알만 낳게 하는 '암탉의 베테리케이지' 사육을 금지했다. 현재는 케이지라 하더라도 닭의 습성을 충족할 산란동지나 헛대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과 호주에서는 소비자들이 달걀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닭의 사육방법을 알 수 있는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단지 케이지 사육 여부만이 아니라 닭들이 야외 방목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사육방법 표시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동물복지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농장동물보호단체인 CWF에 따르면, 영국은 2004년부터 사육방법을 표기하는 라벨링 제도가 실시되면서 판매되는 케이지-프리 달걀이 2003년 31%에서 2011년에는 51%로 증가했다. 라벨 하나 붙였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케이지에서 벗어나 땅을 밟고 사는 암탉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젠 마트에서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찾아보자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포장이나 문구에 속지 않고 건강한 달걀을 구매하려면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정부의 홍

보 부족으로 동물복지인증제를 아는 소비자도 드물지만, 동물복지 제품과 다른 인증 즉, 무항생제 마크나 HACCP 인증 마크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육방법 표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며, 평생 땅 한 번 밟지 못하고 좁은 철창에 갇혀 알만 낳고 살아가는 암탉의 복지도 개선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완전식품이라며 즐겨 먹는 달걀. 그 밥상에 오르 달걀이 베테리케이지에서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켜가며 인간의 탐욕에 의해 억지로 기계적으로 낳고 있는 달걀이란 것을 안다면 아마도 당분간 쉽게 달걀에 젓가락이 가진 않을 듯하다. 당장 베테리케이지의 사육을 금지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적어도 베테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달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으면 한다. 이젠 마트의 달걀판매대에서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찾아보자.



[필통편집국]

[생리대 포비아 속 생각 둘]

생리대, 당당하게 요구할 인간의 기본권

안전하고 편리한 생리대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

보호와 존중은 커녕 돈주고 발암물질 생리대를 사게 하다니...

가임 여성에게서 배란이 시작되면, 여성의 몸은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벽이 두터워지는 등의 신체변화가 생긴다. 수정이 되면 임신이 되지만, 만약 수정이 되지 않고 난자가 죽게 되면, 임신을 준비하던 몸은 다시 다음 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터워졌던 자궁벽을 허물어버리는데, 이 허물어진 자궁벽 등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생리대'.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못하고 죽으면 보통 2주후에 생리가 시작된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를 착용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면 계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성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 휴지로 버터내는 소녀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리대를 사야만 하는 우리나라다. 어느 지방의회에서는 '생리대'라는 말이 회의장에서 쓰기 적절치 못한 말이라 '위생대'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의 미개한 의식 수준을 자랑한다. 급기야 2016년 7월부터 지급되는 재난현장 물품 목록에서 생리대가 위생상 좋지 못하고 개인별 취향이 달라 제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진다.

생리는 여성들이 주장해야 할 권리다. 또한 남성들이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 왜 여성이 생리대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일까? 극단적인 말 같지만 자신이 원해서 생리를 하는 여성은 없다. 생리 그

자체가 여성이 인류를 보존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생리대조차 돈벌이로 이용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아 먹는 나라, 이런 아니지 않은가?

여성들 삶의 일부인 생리에 대해 아마도 남성들은 잘 모른다. 생리를 왜 하는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리에 동반되는 여성들의 심리와 고통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을뿐더러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또한 생리대가 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불편이 있는지, 그것 역시 잘 모른다. 잘 안다면, 우리 사회가 생리를 불결하다는 이미지로 숨겨야 할 것으로 인식할까? 어떻게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쓰지 못하고, 오르지만 하는 생리대 가격을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생리대는 여성들이 당당히 주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어쩌면 국가가 여성의 인권차원에서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생 돈을 지불해야 하고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가? 오히려 그만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생리수당으로 받아도 시원할 것을 말이다.



화장품도 하는 전 성분 표시 생리대는 왜 아직?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로 촉발된 생리대 공포가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성분 표시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성분 공개 요구가 잇달았지만 현재 법 조항은 미비하다.

생리대는 치약, 마스크, 붕대, 반창고, 구강청결제, 콘택트렌즈 세척제, 살균제 등과 함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원료 성분을 기재하는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화장품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받고 있고, 의료인의 처방이 필요해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의약품 역시 오는 12월 전 성분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장품이나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외부 자극에 취약한 여성의 외음부에 직접 닿는 생리대에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필통편집국]

[19금톡톡] 청소년들의 막 하는 19금 토크

여러분은 어떤 성적 패티시를 가졌나요?

각자 먹고 있던 것으로 별명을 지었다.
우렙시(18/여), 쏠비비빅(18/남), 우사과 드링크(18/여), 쏠옥동자(18/남)

페티시 얼마나 알고 있어?

우렙시: 차례대로 어떤 페티시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주세요!
우사과 드링크: 나는 손!
우렙시: 약간 그런 거, 마르손?
우렙시: 나는 엉덩이 인거 같아. 응 확실해!
쏠비비빅: 난 딱히 없는데 나도 손인 것 같아, 너 무 긴 건 말고,
쏠옥동자: 나? 음.....
우사과 드링크: 부끄러워 하지마ㅋㅋㅋ 말해!
쏠옥동자: 나는...교복..?
우렙시: 교복? 많지, 많지! 자, 그럼 각자 알고 있는 페티시에 대해 말해보자!
쏠옥동자: 내가 아는 건 스타킹? 이거 애들 은근

히 많다.
쏠비비빅: 묶는거 묶는거
우렙시: 신발끈? 미안.. ㅎㅎㅎ
우사과 드링크: 생각보다 페티시의 세계가 엄청 넓어, 누군가의 다리 등을 절단한 걸 보면서 흥분을 느끼는 경우Acrotomophilia도 있고, 타인의 배변을 보며 흥분Scotophilia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물론 소수의 경우지만, 그런 게 있다고!
우렙시: 많이들 알고 있는 sm도 페티시의 일부지? 가학Sadism과 피학Masochism의 결합이니까,
우사과 드링크: 그 밖에도 로리콘?
쏠비비빅: 아 그런 것도 은근히 많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있는 거 같아,
우사과 드링크: 음... 여자애들은 슈트? 제복? 그런 것들도 있고
쏠옥동자: 남자애들은 그냥 다 말한 것 같은데?

스타킹 교복...아 냄새 이런 거?
쏠비비빅: 아 발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다고 들었다.

야동을 보며 하는 생각?

우렙시: 야동을 제대로 본적이 없어서 야동을 본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궁금했어, 야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저 사이에 끼고 싶다? 나이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쏠비비빅: 나이고 싶다~?
쏠옥동자: 아 저 남자가 나이고 싶다?
우렙시: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해?
쏠비비빅: 나 그런 생각 안하는데...?
쏠옥동자: 나도 딱히 그런 생각 안하는데
우사과 드링크: 나도 그런 듯

우렙시: 아 진짜? 나는 당연히 할 줄 알았어, 그럼 보고 나서 그냥 좋다? 이거야?
쏠비비빅: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보지..

부모님과 성에 대한 대화는?

우렙시: 며칠전에 엄마랑 성감대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전에도 관련 이야기를 몇 번했고, 너희는 엄마 아빠랑 이런 얘기 안 해?
쏠비비빅: 안하는데...
우사과 드링크: 응 그런 걸 하나..?
우렙시: 남자애들은 아빠랑도 그런 얘기 안 해?
쏠비비빅: 아빠랑 왜 해..?
쏠옥동자: 나는 아빠가 여자 친구나 빨리 데리고 오래, 결혼시켜서 집 밖으로 내보내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남자가 → 여자에게

Q1. 여자들도 자위하나요?

우계속솔로: 전 안 해요.
우내년쌍수: 네, 저도 안 해봤어요.
우계속솔로: 여자애들 잘 안 해요, 솔직하게 세어도 많아 봤자 반에서 한두 명일걸요?
쏠정몽주: 아 진짜요? 예상 밖이네요.

Q2. 크기나 테크닉도 중요하나요?

우내년쌍수: 테크닉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쏠꽃고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 기술?
우내년쌍수: 중요하네요.
우계속솔로: 맞아요, 테크닉 중요하네요.
쏠정몽주: 이상적인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우내년쌍수: 그건 상관없는 거 같아요.
쏠꽃고추: 그럼 커졌는데 3cm면 어떡해요?
우내년쌍수: 그건 좀 힘들겠네요...ㅋ
우계속솔로: 맞아, 막 너무 클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커 줘야 할 것 같아요.

여자가 → 남자에게

Q1. 자위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쏠꽃고추: 못해도 중학교 때부터는 시작하지 않나요? 남동생 있어요?

흔한 페티시	특이한 페티시	극단적 페티시
Amaurophilia 타인의 눈을 가리거나, 자신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완벽한 어둠 속에서 흥분을 느낌.	Acuculophilia 포경수술을 받은 상태의 음경을 보면 흥분을 느낌.	Castration Fetishism 자신, 혹은 타인의 성기를 거세하거나 거세된 상태에 흥분을 느낌.
Automysophilia 더럽거나 더럽힐 때 흥분을 느낌.	Ablutophilia 소나기, 홍수 등에 젖을 때 흥분을 느낌.	Asphyxiophilia 질식과 압박을 당하는 것을 통해 흥분을 느낌.
Carpophilia 손목을 보면 흥분을 느낌.	Alvinophilia 상대방의 배, 배꼽, 심지어는 배에서 나는 소리에서까지 흥분을 느낌.	Erotic asphyxiation 자기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폐쇄해서 흥분을 느낌.
Autoscopyphilia 자기 자신의 몸, 특히 성기를 관찰하면서 흥분을 느낌.	Autoerotic asphyxiation 스스로 숨을 참아 흥분을 느낌. 보통 의식을 잃기 직전에 느낀다고 함.	Necrophilia 시체에 흥분을 느낌.
Gonyphilia여성의 무릎에 흥분을 느낌.	Choreophilia 춤을 추며 오르가슴, 황홀경, 영적인 기쁨을 느낌.	Erotophonophilia 살인을 하며 흥분을 느낌.
Exhibitionism 노출증. 남자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성행위가 불안한 경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그것을 숨기고 과시하려는 성향이 있다.	Eproctophilia 방귀에 흥분을 느낌. 직접 방귀를 쀈는것, 상대방의 방귀를 들이마시는 것 등 모두 포함된다.	Vorarephilia 다른 사람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먹히며, 흥분을 느낌. 대개 한 조각을 통째로 삼키며 흥분을 느낀다고 함.
Olfactophilia 냄새를 맡으며흥분을 느낌.	Macrophilia 거인에 흥분을 느낌. 주로 여성의 거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을 통해 느낌.	Vampirism 피를 빼거나 마시며 흥분을 느낌.

우계속솔로: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요.
쏠꽃고추: 그럼 시작했네요, ㅋㅋㅋ 방에 들어갈 때 노크하고 들어가야 해요, 에티켓! ㅋ
우계속솔로: 알았어요, ㅋㅋㅋ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하는 거예요?
쏠꽃고추: 그거는 기간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아요, 왕성한 시기에는 되게 많이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점점 안 하게 되는?
우내년쌍수: 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이틀에 한 번씩 한다고 해요.
쏠정몽주: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계속솔로: 그러면 몇 분 정도 하는 거예요?
쏠꽃고추: 짧으면 십분, 길면 이십 분 정도요.
쏠정몽주: 어, 거의 그런 거 같아요.
우내년쌍수: 야동을 보면서 하지 않나요, 야동이 20분이면 20분 정도 하죠?
쏠꽃고추: 야동이 20분이면 그것보다는 무조건 빨리 끝날걸요.

Q2. 언제 스탠드업해요?

쏠정몽주: 남자는 하루에 7~8번씩 선다고 연구결과가 있는데, 거의 다 그럴 걸요?
쏠꽃고추: 수업시간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와!” 하면 “선생님 잠시만요. 불경 좀 외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ㅋㅋㅋ
우내년쌍수: 아, 자고 일어나면 서 있나요?
쏠정몽주: 그렇기도 하고 2번에서 말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같아요.
쏠꽃고추: 근데 너무 많이 서면 진짜 귀찮을 때도 있는 거 같아요.
우내년쌍수: 아, 그 정도가?
우계속솔로: 공공장소에서 서면 어떻게 해요?
쏠꽃고추: 글썄요, 주머니에 손 넣고 가야 되나요? ㅋㅋㅋ



학교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기껏해야 남녀의 생식기, 임신과 출산 과정, 성폭력을 피하는 방법, 건전한 이성교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 이번 19금 토크 친구들의 대화처럼, 생각보다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다. 성(性)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성(性)이라는 것은 자극이 개입적인 것이고, 그것을 금지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나 생각해 본다. 성인은 되고, 성인이 아니라고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대방에게 끌리는지 알고, 진심을 담아 서로를 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본다. 성(性)에 대하여 서로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 하고, 그것들을 서로 존중한다면 방식이 어떠한 상관이 없다.

[필통에게 물어봐] 궁금증 FACTCHECK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숨긴 원작 동화의 충격적인 진실들?

디즈니를 비롯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어린이, 가족 관객을 위해 매년 아름답고 긍정적인 동화 원작의 애니메이션과 실사 물을 내놓는다. 어렸을 적 읽었던 동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완성된 영화와 애니메이션도 원작의 메시지와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는데 충실한 편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예로부터 알려진 동화들의 원서는 우리가 접하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다. 막장, 잔혹 드라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끔찍한 내용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권선징악 적 메시지보다는 현실과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있는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친숙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해진 원작 작품들의 실제 내용은 어땠을까? 진짜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인어공주

디즈니식 결말과 전혀 다른 비극적인 결말을 담은

디즈니가 완성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은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어 왕자와 영원한 사랑을 맺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만,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어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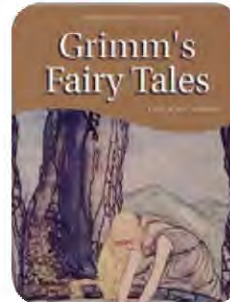
이라면, 원작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인어 공주는 바닷속 마녀가 준 약으로 인간의 다리를 얻게 되지만, 인어였던 그녀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의 후유증이 엄청나다. 그런 와중에 왕자가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자, 배신감을 느낀 인어공주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이를 보다 못한 그녀의 자매가 바닷속 마녀로부터 구한 마법의 칼을 건네며 살 방법을 전한다. 마법의 칼로 왕자를 죽이고 그 피를 다리에 묻히면 인어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공주는 신부와 함께 잠이 든 왕자를 찌르려 하지만 차마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몸을 던져 자결한다. 인간 인어공주는 바닷속에서 거품이 되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라퐁젤은 왕족이 아닌 평민의 자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와 원작은 거의 모든 것이 같다. 그러나 다른 점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에서는 라퐁젤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다가 왕자가 찾아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작의 경우 라퐁젤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낳은 쌍둥이(들)와 같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라퐁젤이 왕자가 찾아올 때마다 사랑을 나눴고, 그에 따라 쌍둥이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동화에서는 마녀가 왕자를 밀었다고 나오지만, 원작에서는 왕자가 자살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다.

라퐁젤



무서운 '뒤끝'을 지닌 살벌한 그녀

백설공주

디즈니의 고전 애니메이션과 릴리 콜린스 주연의 영화로 잘 알려진 [백설공주]는 북유럽의 구전 동화를 19세기 그림 형제를 통해 완성된 버전이다. 순진한 공주, 일곱난쟁이의 우정, 아름다운 키스가 소재지만 이것은 그림 형제에 의해 온전하게 정리된 버전. 북유럽 구전 동화 버전은 너무나 잔혹하고 충격적이다.

다는 증거를 위해 그녀의 심장을 요구하자, 죄책감에 빠진 사냥꾼이 공주를 살려둔 후 돼지의 심장을 왕비에게 바친다. 왕비는 이 심장을 진짜 공주의 심장인 줄 알고 맛있게 요리해 먹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후 공주가 일곱 난쟁이와 지낸 내용과 독 사과에 의해 사망하게 되는 과정은 비슷하다.

백설공주를 독살하려는 마녀 왕비는 공주가 죽었



난쟁이들이 죽은 공주를 장래하려 할 때 왕자가 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녀의 죽은 시신에 반한 왕자가 난쟁이들과 거래를 통해 공주의 시신을 넘겨받게 되고, 공주의 시신을 바라보며 흡족해하는 비정상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공주가 깨어난 것은 왕자의 하인이 물건을 시신을 훔치려다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이 절로 나오게 되면서다. 이후 왕자와 결혼한 공주는 자신을 죽이려 한 왕비를 체포하게 되고 그녀에 대한 복수로 숲속에 달구어진 쇠 구두를 신고 죽을 때 까지 춤을 추게 하는 형벌을 내리게 한다.

이복 언니들을 잔인하게 심판한

신데렐라

떠도는 이야기 중에는 신데렐라가 결국에는 왕자가 짝을 성행위를 하는 성노예로 전락했다 등의 이야기가 떠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 사람들이 각색한 잔혹동화의 이야기이고 원래 원작의 이

아기는 이렇다.

1697년 프랑스의 작가 샤를 페로가 쓴 원작에는 아이들이 보기에 다소 잔혹한 장면들이 등장한다. 문제의 장면은 신데렐라를 괴롭힌 심술궂은 이복 언니들이 유리 구두를 신으려는 장면. 계모는 어떻게든 자기의 두 딸에게 구두를 맞게 하려고 친딸의 발가락과 뒤꿈치를 자르는 만행을 저지르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결국 유리구두의 주인이 신데렐라임이 밝혀지고, 왕자와의 결혼식이 거행되는 날, 계모와 두 딸을 향해 새들이 눈을 공격해, 그녀들의 눈알을 파먹게 된다. 결국 세 모녀는 영원한 장님으로 살게 되었다.



잔혹, 막장 드라마였던 원작

잠자는 숲속의 공주

디즈니 영화 [말레피센트]의 바탕이 된 원작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각기 다른 버전의 새로운 결말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버전은 조금은 민망한 설정이 등장한다. 잠들어 있는 공주가 아이를 낳게 된 배경에는 지나가던 다른 나라의 왕이 잠들어 있는 공주의 모습에 반해 강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쌍둥이 아이들이 탄생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공주가 깨어난 것은 쌍둥이 아기가 엄마의 손가락을 빨다 가시가 나온 것으로 되어있다. 프랑스 버전에서 식인습성을 지닌 왕비는 이탈리아 버전에서 왕의 아내로 등장해 다시 공주를 잡아먹으려다 왕에게 들켜 화형을 당하게 된다. 여왕을 죽인 공주와 왕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프랑스 버전은 잠에서 깨어난 공주가 자신을 깨운 왕자와 결혼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화, 이것이 궁금하다 SELF Q&A

Q.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죽은 것이 아니었나요??

원작의 묘사에 따르면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먹은 이후에도 자는 것처럼 보였고, 피부가 산 사람같이 하얗다는 묘사가 있다. 게다가 왕자가 백설 공주를 옮기다가 덜컹거렸을 때 독 사과가 입에서 튀어나와 살아났다는 것을 보면, 백설 공주는 사실 독 사과를 먹고 독에 의한 중독이 아니라 질식에 의한 기절했었다는 것이 된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기절한 것과 죽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했고, 독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Q. 왜 원작들이 이렇게 잔인한가요??

지금의 동화들은 구전민담이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어른들의 문화였던 것. 과거에는 성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잔인했던 것.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태도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생겨났기 때문에 18세기에 그림형제가 썼던 동화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을 순화했을 리가 없다.



Q. Snowdrop이라고? Snow white이긴가요?

보통은 Snow White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그림형제가 쓸 때에는 Snowdrop이라고 썼다. 다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매우 유명해지면서 Snow White로 알려진 것. 이 외에도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원제는 들장미공주, 영어로는 Briar Rose가 된다. 그리고 빨간모자 같은 경우도 영어 제목은 'Little Red Riding Hood'와 'Little Red-cap'이며, 빨간 망토라는 명칭과 빨간 모자라는 명칭 모두 병행해서 쓰인다.

Q. 원작 중에서는 완전 아하고 완전 잔인하게 묘사된 것도 있던데요?

그것은 두 명의 일본작가가 다시 창작한 '알고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동화'라는 책에 있는 것이며, 실제 원작은 그렇게 해석할만한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것 뿐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묘사 되어 있지는 않다. 위의 원작들이 아무리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어 봤자 18세기에 지어진 것이지만, 일본작가가 다시 쓴 책은 1990년대에 쓰인 것이기 때문이다

[맏칸년맏반] 명신고등학교 2학년10반편

키크고 잘생긴 애들 다~ 모였다! 매력터지는 우리 반 구경 함 하이소~

맏칸년맏반 출연한 모든 반들이 자기반이 최고라 말한다. 그런데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명신고 이과반 중에 키, 외모, 성적, 들끼 하나로 빠짐없이 다 챙겼다 저부하는 반이 있다. 바로 명신고 2학년 10반 수업 들어 오는 선생님들도 매력적인 반이라 엄지를 치켜드는 보기 드문 반. 신기한 점이 많은 2학년 10반 교실을 들여다 보자.



[미니설문] 개성이 드러나는 이상형&좋아하는 것

번호	이름	내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것
1	강수림	대화 잘 통하는 여자	원피스
2	강훈	쓰위,모모	트와이스♥
3	구상욱	긴 생머리	게임
4	김유진	둥둥한 여자	멍멍이
5	김정현	예쁘고 착한 여자	휴식
6	김태훈	주희♥	주희♥
7	김회민	귀여운 여자	그림
8	남준우	긴 생머리	휴식
9	박건수	x	x
10	박상경	나연	맛있게먹기
11	박상현	평범한 여자	게임
12	박성빈	애교 많은 여자	게임
13	박수언	게임 좋아하는 여자	돈
14	박용근	예쁜 여자	축구
15	박준선	니	엄마
16	방치윤	웃는게 예쁘고 비글미 있는 여자	YOLO!
17	배정훈	나랑 성격이 맞는 여자	휴식
18	백은수	2D	잠
19	서호영	착하고 귀여운 여자	가족
20	성민재	세경이 미래 여친	친구
21	송진서	윤지♥	윤지♥
22	안지민	삼현여고♥	웹툰보기
23	엄재형	원 빈	고양이
24	오지성	없음	게임
25	오태훈	착한 사람	노래
26	윤한진	귀여운 사람	돈
27	이우진	키크고 예쁜 사람	김경호
28	이윤형	멋있는 사람	김두만
29	정필근	나 닮은 여자	어른들의 음료!
30	진세경	적극적인 여자	친구
31	최상원	속 쌍꺼풀 있는 여자	운동
32	하민서	키작은 여자	돈

우리반을 빛내는 반장&부반장



반장. 진세경 우리 반 반장인 세경이는 우리반에서 두 번 째로 키가 크고 잘 생겼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도 좋다. 운동을 할려는 의지가 강한만큼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의지가 강한 우리반 대표 멋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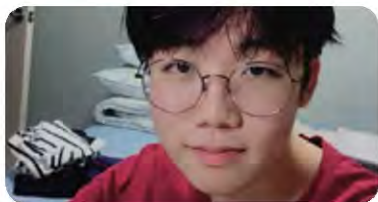


부반장. 서호영 부반장인 호영이는 순둥하고 소극적이게 생겼지만 우리 반 일이라면 반장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여한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첫인상과 다른 반전매력 친구들



박용근 딱 보면 소심하고 무뚝뚝하게 생겼지만 체육시간만 되면 누가 그러느냐는 듯이 활발하게 뛰어 다니며 운동에 열중이다. 공부도 잘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는 우리 반 뇌섹남이다.



안지민 강렬해보이는 첫 인상과는 달리 착하고 차분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불임성이 좋다. 친해지면 장난도 많이 치고 말도 많이 하게 된다. 한 두 번씩 특별한 개그감으로 분위기를 업 시키기도 한다.



박성빈 무심하고 말 수가 적고 차분한 느낌이지만 항상 먼저 말 걸어주고, 얘기 하다보면 멈추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 주제를 만들고 분위기를 이끈다. 특히 게임이라면 빠지지 않는 친구이다.

모델 뺨치는 우리 반 기력지들



윤한진 인한진이는 키 180센티는 기본으로 넘겨 주는 우월한 기력지에 잘생긴 훈훈한 외모를 가졌다. 가끔씩 친구들의 장난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 들어 멋쩍을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잘 보면 귀여운 모습이 가득한 우리 반 매력 덩어리다.



송진서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 거기가 조금 무섭게 생겨서(?) 처음 보면 잘생겼다는 말대신 무섭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친해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렇게 착할 수 없는 순진한 바보 거인이다.



정필근 치팅 타칭 세미필(세계 미남 필근이)인 필근이는 진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패션을 추구(?)하는 우리 반을 넘은 명신의 패셔니스타이다. 그리고 필근이의 흥은 조종했던 우리 반의 분위기를 늘 뒤집어 놓는다.

우리반 대표 얼짱들(선글라스 챙기세요)



얼짱 1호 성민재 학교에 돌아다닐 때는 묵묵하고 조용하게 생활한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무슨일이 있거나 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항상 그곳엔 민재가 있다. 흔데레 느낌이 많이 나는 친구다.



얼짱 2호 방치윤 잘 논다. 그런데 자기 할일도 완벽히 하는 보기 드문 쫌 잘난 타입이다. 놀 때만큼은 확실히 놀고 친구들과의 장난도 즐기지만 주위 친구들 챙겨주는 것도 완전 감인 착한 친구다.



얼짱 3호 이윤형 우리반에서 제일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다. 똥통 튀고 활기찬 우리 반 체육부장이다. 그런데 모두가 가지는 의문? 윤형이는 잘생기고 활발한 성격인데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미스터리다.

익명 보장! 우리 반 여고 선호도 조사!

순위	학교	명
1	진주여자고등학교	10
2	제일여자고등학교	8
3	삼현여자고등학교	7
4	경해여자고등학교	5
5	선명여자고등학교	2

명신고 2학년 10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학교는 진주여고였다. 가까운 제일이나 삼현이 아니라 진주여고라 좀 의외의 결과이긴 하지만 적어도 10반의 최고 인기 여학교는 진주여고다. 여자친구가 진주여고가 제일 많았나 보다.^^

[맏칸년맏반-신청] 삼현여고 2학년 7반편

삼현여고 이라 략! 2학년 7반 이쁜이들을 소개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분위기도 좋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우리반!

감자, 계란 등 갖가지 간식을 서로 들고 와서 나눠 먹는 재미 가득한 크린반이 또 있을까? 친구들 모두가 하나같이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들을 항상 놀라게 하는 재주를 지닌 반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박준형에게 감명 받아 우리 반 만의 유행어가 생겼는데 그 유행어는 바로 BAAAAAAM (뽐) !!! 지난 한 학기 동안 이 단어 하나면 우리 반은 뽐뽐 뽐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엉뚱한 면도 많고 한명 한명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멋진 반, 삼현여고 2학년 7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반 담임, 귀염둥이 이현주 선생님



2학년 부장 선생님이어서 항상 바쁘시지만 그래도 부모님 못지않게 우리 반을 항상 신경써 주시는 엄마와 같은 존재다. 평소에는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아이 같은 웃음을 지을 땐 학업 스트레스를 날려 보낼만큼 친근한 담임샘이기도 하다.

주목^^ 우리반 멋진 친구들!



김가영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자주 해 친구들을 항상 재밌게 해주는 친구다. 항상 자고 있지만 청소 시간에는 벌떡 일어나 끼?를 발산한다.



정지우

예쁘지만 셀고다. 키가 크고 날씬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 최신 유행곡을 다 꿰고 있는 대단한 친구다.



김민지

우리반 찌질한 부반장이다. 입만 열어도 욕먹는 동네북이다. 첫 인상은 무섭지만 알고보면 사랑스러운 친구. 사랑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진달래꽃이라고 불린다.



조혜인

친구들이 놀리면 귀여운 반응을 보이는 키 큰 친구다. 말투와 행동이 귀엽고 엉뚱한 면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박희라

그냥 웃긴 친구이다. 뭘해도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며 불장난을 매우 재치 있게 잘 춘다. 이상한 것을 좋아하고 웃음소리로 거창한 친구다.

나의 이상형 & 친구들이 보는 나?

이름	나의 이상형은?	친구들이 보는 나
1. 강주희	키 177cm에 웃는게 예쁜 사람	주토피아 닉
2. 김가영	박우진	sick god
3. 김미주	말 잘 통하는 사람	미주
4. 김민경	왕강이	주토피아 주디
5. 김민지	☆이것을 보고있는 잘생긴 너☆	진달래꽃
6. 김소희	지창욱	미스 김
7. 김주연	글씨 예쁜 남자	7반 여신
8. 김효경	♡편지용♡	효경이
9. 박서영	귀엽고, 잘생기고 때론 sexy?	EXO-L!
10. 박주아	말 잘 통하는 사람	쥬아쥬아
11. 박희라	김태형(V)	자칭 도봉순
12. 서희빈	키 큰 사람!	7반 마틸다
13. 송소민	'지성' 같은 남자	차도녀
14. 심유진	자상하고 나와 관심사 같은 사람	물리에 미친 아이
15. 오다빈	귀여운 사람	다빈치
16. 윤성언	보고있나 유재홍 근데 내 이상형은 아님	성언둥이, 폐코쌍
17. 이유하	맞춤법, 띄어쓰기	7반 엄마
18. 이주영	느끼하지 않은 남자	씨리
19. 이주현	낮저밤이	7반 간판
20. 이지원	음악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람	스베릿☆
21. 정지우	툴 앤 핸섬 영맨 리치	섹시큐리
22. 정현주	보고싶고 목소리 듣고 싶은 그 사람	보고싶어 죽겠다
23. 조아영	윙크와 저장을 잘하는 남자	조공주
24. 조유진	세상 어디에 없는 착한 남자	한채아
25. 조제원	매력 있는 사람	조제, 김재환 열빠
26. 조혜인	180cm 이상 남자♡	헤이니쉬 (가정의학과 교수)
27. 최수민	헬레니즘 얼굴	큐티섹시
28. 최영민	착한 남자	청량갑
29. 최혜정	쌍꺼풀 있는 사람♡	혜명공주
30. 하은재	유아인, 임영민	포노
31. 한가은	대휘야 짜고싶어♡	가니쉬



이주영

우리 반 귀염둥이 1. 흰 피부와 뚜렷한 이목구비로 완벽한 외모를 가졌음에도 상냥한 목소리와 착한 마음까지 가진 불공평한 세상을 느끼게 하는 존재.



최영민

우리 반 귀염둥이 2. 귀여운 앞머리가 정말 잘 어울린다.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을 한 방 먹이는 영악한 아이다. 여자도 반할 정도의 목소리를 지녔다.



서희빈

우리 반 귀염둥이 3. 감자를 매우 좋아하며 배고프면 설탕을 손에 찍어 먹는 특이한 친구.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귀엽다. 정말로 사랑스럽다.



강주희

친구들에게 독설을 잘 날리는 친구다. 웃으면서도 냉정하게 말 잘하는 매력 있는 친구. 얼굴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이 귀여워서 성언이의 사랑을 받는다.



김민경

정말 예쁜 이목구비를 가진 차도녀. 친구들에게 칭찬을 잘해주며 진심 담긴 응원을 해주기도 한다. 볼수록 매력 있는 친구이다.



이유하

우리 반에서 엄마를 담당하고 있다. 잘 챙겨주고 다정한 탓인지 같이 있으면 포근하다. 화장을 하지 않지만 한 것 못지않게 예쁘고 피부가 정말로 좋다.



이지원

우리 반 락커인 이지원. 성격도 밝고 항상 유머러스한 그런 재밌는 친구다. 때로는 수업 분위기를 다 귀엽지만 생각도 깊고 친구들을 잡는 카리스마를 뽐내는 친구. 말 많은 친구를 때문에 고생이 많다.



윤성언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툭툭한 성격과 밝은 웃음소리로 반전매력을 뽐낸다. 귀엽지만 생각도 깊고 친구들을 잡는 카리스마를 뽐내는 친구. 말 많은 친구를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주현

매우 툭기가 넘치며 말도 툭툭한 매력을 보여주며 친구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혼자만의 펑크빛 세상에 사는 것만 같아 보인다. 진정한 셀고다.

잘가~ 유학가는 분위기 메이커 한가은

"조심히 잘 다녀오고 건강하자. 보고 싶을 거야!"



우리 반을 단번에 제압 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친구다. 재치 있는 말투와 몸 개그로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는 친구이다. 웃음소리도 매우 커서 그것만으로도 재미를 주는 친구이기도 하다. 이 친구가 얼마 후 유학을 가게 되는데 가운이가 유학 가면 우리 반이 썰렁해질 것 같다. 호탕한 웃음소리와 재치 있는 농담이 그라울 것 같다. 조심히 잘 다녀오고 건강하자. 보고 싶을 거야!



[진주투어] 에나~ 중앙지하상가가 바뀌었다!

에나몰로 새로운 변신? 근데 왜이리 썰렁 하지!

그래도 학생들에겐 만남의 장소로 딱 좋아!

지난 2017년 6월8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진주 지하상가 '에나몰'이 새로운 변신을 마치고 개장했다. 개장한지 2달을 훌쩍 넘겼다. 이번 달 진주투어에서는 새롭게 바뀐 에나몰을 방문해 보았다. 에나몰은 오전 8시부터 밤10시까지 운영되며 그 외 시간은 도로 양쪽을 건너는 통로를 제외하고 통행자제가 안된다. 과거 진주 중앙지하상가라 불리며 서부경남 유일의 지하상가로 명성 높았던 '에나몰'을 함께 둘러보자.



새롭게 바뀐 지하상가의 내외부



바뀐 지하상가는 입구부터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비가림막이 없었는데 새롭게 투명한 유리박스 형태의 현대적인 조형물로 입구를 디자인했다. 일단 비가 오면 유용할 듯 했다. 내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천장이 조금 높아졌고, 과거의 철문 때문에 조성된 딱딱한 분위기와 달리 모던한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점포수를 확 줄여 통로가 훨씬 넓어 보였다. 지하상가 중앙에 있었던 분수가 사라지고 작지만 확 트인 광장이 생겨 넓고 이동하기 수월해 졌다.

새롭게 생긴 진주청년몰, 황금상점

현재 트렌드인 청년창업에 발맞춰 진주에서 청년CEO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줬다. 그 결과 20개의 점포로 이루어진 청년몰이 구성되게 됐다. 청년몰에는 핸드메이드 제품, 식품, 의류, 완구 등 젊은 사업가들이 감각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확실히 점포를 운영하는 연령층이 낮아 보니 젊은층의 취향을 저격하여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몰에서는 이벤트의 하나로 한복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누구나 예쁜 한복을 빌려 입고 기념촬영을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진주성을 찾아 색다른 관광 기회를 가질 수



도 있다고 한다.

색다른 점포들의 등장

이전의 지하상가 하면 의류점포만 가득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완전 달라졌다. 개성 넘치는 황금상점 20곳이 아니더라도 아주 다양한 점포들이 눈길을 멈추게 한다.

반려동물용품샵, 네일샵, 악세사리, 모자만 파는 가게, 타로카드점, 철학원, 뽕기방, 가차샵, 맛사지샵, 사진관 등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무인편의점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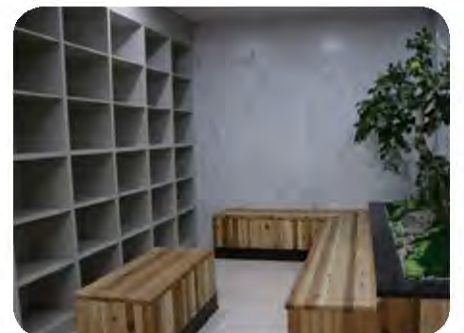
자단에게 색다르게 느껴졌다. 무인편의점은 평소에 우리가 알던 유인 편의점처럼 다양한 식료품도 판다. 하지만 인터넷 및 여러 오락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펙스 송신, 커피, 사진 인화도 된다고 한다. 또 일명 뽕기방이라는 무인 가차샵도 청소년들에게는 약속시간을 기다리며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재미를 준다.



청소년들에겐 만남과 약속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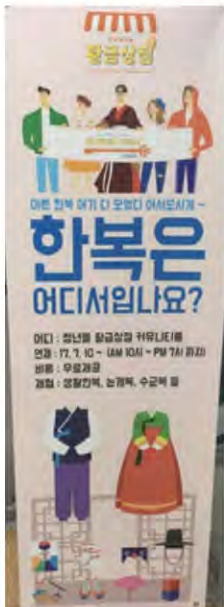
새롭게 문을 연 지하상가, 청년몰이 도심이 분산되고 과거만큼의 유동인구가 따르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소풍공간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해 서인지 아직 빈점포도 많고 활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겐 교통여건이 좋고 시내 중심가

에 위치해 있어 만남과 약속의 장소로는 참 좋은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매월 마지막째 주 토요일에는 중앙광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멋진 공연도 진행된다고 하니 진주 에나몰에서 약속을 잡아 보는 건 어떨까?



한복입고 진주성 가서 인증샷 어때?

누구?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학생들은 학생증이면 OK
비용? 완전 무료
대여시간? 4시간
운영시간? 평일 AM 11시~PM 5시/ 주말 AM11시~PM7시
어디로? 지하상가 청년몰 사무실(북측 끝)



[취재/배찬환(진주교2), 임수중(진주교1)기자]

재개장 2개월...

진주 에나몰(중앙지하상가) 빈 점포 수두룩

경남 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해 재개장한 중앙지하상가 '에나몰'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장기 침체와 콘텐츠 부족으로 재개장 2개월이 지났지만 빈 점포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는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앙지하상가를 2015년 말 65억7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에 착수해 지난 6월 에나몰이란 브랜드로 문을 열었다. 시는 에나몰 개장으로 진주성과 로데오거리, 중앙시장에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기존 211개 점포를 114개(일반 상가 87개, 특산물 상가 7개, 청년몰 20개)로 대폭 축소하고 확보된 공간에 시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싶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또 기존 중앙 분수대를 철거하고 진주시가 우주항공 도시임을 알리는 우주선 모형의 광장을 조성해 즉석 라이브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에나몰 곳곳에 시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커뮤니티실을 제공해 옛 사글사랑방처럼 웅기충기 모여 앉아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며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13.2(4평)~49.5㎡(15평) 규모의 일반 점포 87개를 놓고 9차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으나 25.3%인 22개가 비어 있다. 낙찰됐다가 중도 포기한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영업을 하는 점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액을 들여 리모델링한 에나몰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특별한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노인이나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젊은 부부들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손님이 적다 보니 폐점시간보다 2시간이나 당긴 오후 8시에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다.



반보드 enquete 남, 여학교 설문조사

명신고
2학년 2반

VS

경해여고
2학년 3반

Banboard

〈필통 반보드 char〉는 매월 남녀 고등학교 각 1개반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남녀 학생들의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니 설문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명이 채 안 되는 1개반의 설

문이므로 그 결과가 어떤 통계적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번 조사는 명신고 2학년 2반 34명과 경해여고 2학년 3반 32명에게 같은 질문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과연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의 결과는 어떨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경험 횟수?

요즘 학생들의 연애 경험은 어느정도일까? 재미있는 결과다. 남, 여학생 30%정도는 1~2명이라는 총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여학생은 연애경험이 없다고 무려 16명으로 절반, 남학생은 설수 없이 많다는 학생이 10명이나 되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남학생 그렇게 많이 연애한 여학생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거야..^^

일주일에 적절한 데이트 횟수

적절한 데이트 횟수? 연애하는 사람들이야 늘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을테지만 학생이라는 현실은 만남 자체가 쉽지 않다. 역시 남학생이다. 7명이나 되는 열정남이 매일 데이트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1~2회가 가장 많을 것 같았는데 남, 여학생 15명은 3~4회라고 답해 비슷한 결과였다.

더치페이 어때?

연애할때 데이트비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더치페이 이가 당연하다는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당연하다는 여학생들은 60%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남학생은 20%에 불과했고 55%의 학생은 '돈 있는 사람' 이라고 답했다. 더치페이에 대한 남,여학생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한반도 전쟁위기?

요즘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북한과 미국의 분위기가 살벌하다. 과연 학생들은 불안한 한반도정세를 어떻게 느낄까? 전쟁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학생은 남학생은 17%, 여학생은 28%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 55%, 여 37% 학생들은 '모르겠다' 라고 답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지금 연애 어때?

지금 당장 연애의 유혹이 있다면? 압도적으로 남,여학생 모두 기회가 된다면 연애를 한다면 손을 번쩍 들었다. 물론 현실에선 기회가 잘 안오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눈길 가는 건 '연애 관심없어' 란 대답의 남학생 5명, 여학생 7명이다. 이유가 뭘까?

연인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 장르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 장소중 하나가 영화관이다. 함께 보고싶은 장르는 남,여학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남학생은 응큼함이라 해야 하나, 44%가 19금영화를 택했다. 반면 여학생은 48%가 애인과는 워든 좋다는 로맨틱한 답을 줘서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전 애인의 선물?

어쩌면 남녀 사이는 만남이 있기에 헤어짐이 필연인지도 모른다. 첫 만남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어찌 인생이 그리 쉽기만 할까? 한 번씩 궁금했다. 헤어진 후 서로에게 주었던 선물을 어떻게 할까? 남녀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쓴다' 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 물건은 죄가 없다.^^

남북한 통일될까?

통일에 대한 생각? 요즘 분위기 탓일까? 빠른 시일 내 통일 될 것이란 대답은 거의 없었다. '아주 먼애기' 나 '가능성 없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남학생은 61%에 달해 여학생 46%에 비해 훨씬 높았다.

주관식, 남녀의 생각 차이?

질문	경해여고	명신고
나의 이상형?	배운 변태, 짝을 가진 꽃을 좋아하는 프로그래머, 주량은 센데 취할 정도로 안 마시는 사람, 낮저밤이, 내 남친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애기 잘 들어주고 아기 좋아하는 남자, 요리 잘하는 남자, 내가 하는 말에 반응 잘해주는 남자, 말 잘 들어주고 좋아하는 분야가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배려심 깊고 나와 잘 맞는 남자, 술 버릇 나쁘지 않은 사람, T존이 잘생긴 186cm, 폭력 안 쓰고 신중한 사람. 낮에는 강아지 밤에는 늑대인 남자, 잔근육 있고 좋은 향이 나는 함께 있으면 재밌고 행복한 사람, 옷 잘 입고 개념있는 남자, 웃는 게 예쁘고 한결 같이 잘해주는 옷 잘 입는 사람, 퇴폐적이고 섹시한 마른 체형, 독부러지고 내 의견 존중해주는 사람, 가치관이 잘 맞고 나를 좋아하는 모습에 눈에 보이는 사람, 인위적이지 않은 냄새와 단단한 몸을 가지고 머리에 약간의 펌이 들어가 있어 머리카락을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오는 사람, 재밌고 성공한 사람, 섹시한 남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 섹시하고 눈썹 찢어진 남자, 눈썹이 예쁘고 듬직한 178cm, 섹시한 눈빛을 가진 사랑스러운 남자, 롯데 자이언츠 NO32, 욕X 담배X 허세X, 청량한 분위기의 웃는 게 예쁘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인 나랑 잘 맞는 사람, 얼굴이 조화롭고 성격이 좋은 사람, catfish and the bottlemen과 kingkrule 좋아하는 사람, 불뿔 토토+이자들이 안하는 사람	섹시한 여자, 이쁜 여자, 동그리, 눈 이쁜 여자, 말 잘 통하는 사람, 관심사 비슷한 사람, 단발 머리, 키 작은 여자
첫 데이트 때 먹고 싶은 음식?	마음, 파스타, 초밥, 떡볶이, 분식, 돈까스+우동, 스테이크, 샐러드 파스타, 라면, 베리마운틴 빙수, 달걀찜, 양식, 이자와, 냉면, 한식, 가초동, 피자, 뭐든지, 그때 먹고싶은 거, 케이크, 간식(과자, 음료수), 설레임, 타코	자장면, 스테이크, 그녀와 함께라면 뭐든지 괜찮다, 규카츠, 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
가장 보기 싫은 여성의 패션?	돈 없는데 명품 개떡칠, 좇끼니진, 앙 좇떡끼, 어울리지 않는 힙합스타일, 어설픈 유행 따라서 멋내는 것, 초딩이 입을 것 같은 옷, 걸핏만 잔뜩 돈 거, 스트릿 브랜드 짝퉁, 핑퍼짐한 바지, , 캐릭터 맨투맨, 후줄근한 셔츠, 금목걸이, 스톤맨 투맨+카고바지, 캄배 패션, 명품으로 치장한 남자, 색이 독특한 옷, 낡고 물 빠진 옷, 색깔 매치 안되는 옷, 체형에 맞지않게 부담스러운 옷, 등산복, 힙합패션, 츄리닝, 너무 비치는 흰 티, 과한 액세서리, 금반지, 5부스키니, 병거지 모자에 라이관린 안경에 화려하고 부담스러운 옷, 형광색 옷, 제도 안한 몸	몸 가리는 패션, 시스루, 나팔 바지, 노출 심한 옷, 가죽바지
우리학교에서 당장 바뀌었으면?	달걀 때문에 슈퍼볼이 바나나로 바뀐 것, 선도부들, 급식 많이 많이 많이 주세요, 에어컨 9교시랑 점심시간에도 틀어주세요..., 체육관, 두발규정, 경해여고 체육관이 없음, 건물, 교육과정, 급식 식판, 화장실 청결 상태, 밥 데칼 많이 주세요, 컴퓨터, 방송실, 하교시간(선명이랑 화집), ★차별★, 교복 치마 길이, 쓸데 없는 교칙 폐지, 용의복장 제한(학생다운 것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선비마인드가 아닐까)	급식, 선생님, 학교 시설, 남녀공학으로, 강제 보충

양자택일

뭘 선택? 핸드크림 VS 향수

달걀포비아? 먹는다 VS 안먹는다

혼전순결? 지킨다 VS 안지킨다

교육적 체벌? 찬성 VS 반대

나의 애인? 머리좋은 VS 몸 좋은

재미삼아? 남,여학교 호감도 조사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진주여고	16	동명고	14
진주제일여고	9	대야고	5
삼현여고	4	명신고	5
경해여고	5	진주고	3
중양고	0	중앙고	2
		부설고	2
		진양고	1

[취재/ 한현지(경해여고2), 전석용(명신고2)기자]

휴대전화 장기간 압수는 현실을 무시한 처벌

현실적인 압수기간의 적용 등 교칙 완화가 필요해

따르릉~따르릉~ 수업시간에 알람이 울리고 말았다. 당황해서 허겁지겁 휴대전화를 꺼지만 늦고 말았다. 선생님께서는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너 O일간 휴대폰 압수야” 라고 하시곤 휴대폰을 들고 가 버리셨다.

진주시내의 모든 학교에는 휴대폰에 관한 교칙이 있다. 아예 휴대폰 등 전자기기 자체가 학교 반입을 금지하는 학교에서부터 일괄 수거하고 다시 지급하는 학교까지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히 수업시간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대부분 압수를 당한다. 규정을 어긴 것이니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문제는 천차만별인 압수 기간이다.

압수 기간은 학교별로 짧게는 1~7일 길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다. 짧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압수기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 요즘 대부분 학생들은 휴대전화에 모든 연락처를 저장해 둘 뿐 아니라 연락과 소통의 유일한 도구가 휴대전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생활과 관련된 과제와 동아리활동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학교생활 이외의 학원 및 개인적인 친목활동등에도 타격을 받게 된다.

둘째, 장기간 압수 시 휴대폰 자체를 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휴대전화 요금이 계속 나가게 되고 결국 이런 낭비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요즘의 휴대전화요금제는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정액제요금이 일반적이라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휴대전화 압수기간이 짧으면 힘들더라도 기다리겠지만 압수기간이 길 경우에는 학생들은 휴대전화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인터넷과 카톡, sns만이라도 가능한 공기계를 구입 또는 빌리게 된다. 금전적 비용도 문제지만 뒤 따르는 부모님과 갈등도 압수가 가져오는 나비효과이기도 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가족, 친구 등과 소통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각 학교장에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허용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적절한 규칙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에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압수기간은 그 기간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 정해질 필요가 있다.

휴대전화는 이미 과거와 같이 단순한 전화가 아닌 세상이 되었다. 학생들의 일상과 생활에도 떨어질 수 없는 일부가 된지 오래다. 학생들의 입장을 살피고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교칙을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취재/ 배찬휘(진주고2)기자]

남강유등축제 창작등이 수행평가로 둔갑해

축제가 축제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

매년 10월이 되면 진주에는 진주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와서 즐기는 축제가 열린다. 그것은 바로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다. 모두가 즐거울 줄만 알았던 이 축제에서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바로 진주시내 고등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이맘때면 항상 ‘진주남강 유등축제 창작등 경연대회’ 준비로 바쁘다.

진주시는 진주남강 유등축제에 대해 진주 내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명석초등학교와 진주의 고등학교 7개 학교(진주고, 진주여고, 중앙고, 진양고, 경진고, 자동차고) 고등학생 1,2학년들을 대상으로 창작등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작등 만들기는 학교에서 신청하기도 하고 진주 문화예술재단의 요청으로 참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참여는 분명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다. 하지만 학교의 재량에 따라 이를 수행평가로 채택하여 창작등 만들기가 학생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은 “창작등 만들기가 미술 수행평가의 내용에 포함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안그래도 방학 때 학교보충수업 나오라, 학원 다니라 정신이 없는데 창작등까지 만들어 오라니 여간 골치 아픈게 아니죠.”라며 불만스런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이 힘든 점은 이 뿐 만이 아니다. 학교 재량으로 창작등 만들기

를 수행평가로 일반적으로 넣어 놓고선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창작등 제작에 필요한 철사와 한지 등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아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B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은 “창작등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해요, 부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창작등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학교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준비물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는 철사 굵기를 잘못 알아서 다시 사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만약 학교에서 준비물을 제공해 줬더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라며 답답해 했다.

물론 이렇듯 모든 학생들이 불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작등 만들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다.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귀찮고 힘들어서 그렇지 다 만들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등을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도 기뻐요.”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전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등만들기를 강요하는 학교의 모습은 진주시의 축제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진주남강 유등축제는 진주시민 모두의 축제이고 대부분의 청소년들도 자부심을 느끼는 지역 축제다. 좀 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아이디어를 찾고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창작등 경연



대회, 그런 남강유등축제가 되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그것이 고작 학생들에게 축제를 내어 주는 것이 되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한다. 축제는 모두가 즐길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런데 화려한 축제의 보이지 않는 뒷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다. 지역의 축제는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축제가 축제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취재/ 양지인(진주여고2)기자]

이러니까 니들이 시험을 못 보지!

내신시험 출제자로서의 선생님의 조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당 2번, 총 6학기 동안 12번의 내신시험을 보게 된다. 내신 시험의 성적은 누적되고, 각 대학은 학생의 누적된 내신 성적과 각종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누적된 내신 성적에 의해 한 학생이 갈 수 있는 대학교의 수준과 당락이 결정되기에 입시 생활에서 내신시험이 가지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시험을 치고서 항상 남는 건 후회와 미련뿐이다. 머리가 나쁜 자신을 탓하고, 시험을 어렵게 낸 선생님을 원망하고,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입시 제도를 원망한다.

내신 시험은 우리가 치는 시험이고, 출제는 학교의 교사들이 한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의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보고 출제자로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모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여쭙보았다. ‘선생님, 우리가 왜 시험을 못 볼까요?’

1.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한 선생님이 말했다. “애들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항상 기계적으로만 필기하니 혼자서 복습을 해야 할 때는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참고서에 의존하게 된다.” 교사마다 출제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에, 학교 교육에서 각 교

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차이는 학교 수업과 시험 문제로서 드러나는데, 참고서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2. 차라리 학원 끊어라.

‘자기가 공부하기 보다는 학원에 의존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학원이 공부를 ‘시켜’ 준다는 것. “난 이렇게 해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 못 봤다. 차라리 학원을 끊는 게 낫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 본질을 잃고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학원교육을 비판하는 것 같았다.

3. 공부하는 이유를 모른다.

한 선생님은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었다.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 살아가게 편하다. 그런 지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교이고, 나 역시도 그랬다. 하지만 학생들이 미래에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덧붙여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실제로 다양하게 쓰인다. 하지만 학생들은 고등학교 공부는 입시에 필요한, 그저 잠시 스쳐지나가는 도구로만 인식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재미가 없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 지식들이 입시도구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대



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또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다양하게 쓰인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면, 공부는 안하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년동안 독서라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지금 3년이 정말 소중한 시기라는 것 정도는 알 것 아니냐.”라며 힘주어 얘기해 주었다.

공부는 원래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이 이후의 시간에 끼칠 영향과 미래에 가질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100년, 150년 동안 살아가게 될 인생에서 기초공사를 하는 곳이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받침대를 만드는 곳이다. 하루하루를 숨털같이 날리다 보면, 어느새 받침대를 세울 재료가 사라져 있을 것이란 걸 경계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기자.

[취재/ 박승민(진주고2)기자]

[대학생이 말하는 학과이야기]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찾다

인류와 동물의 건강과 복지 펫코노미시대 수의학과에 도전하세요

Q.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A. 저는 수의대 대학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본과2학년 이채영입니다.

Q.수의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A. 수의학과는 보통의 학생들이 잘 모르시며 수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과입니다.수의학과는 예과2학년 본과 4학년 총6년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예과에서는 본격적인 수의학을 배우기 전 필요한 기초과목들을 공부하게 되고 본과 때는 수의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6년의 학과 과정을 마치면 국가시험을 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Q.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

A.대부분의 친구들이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의 복지에 관심이 많고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많이 오는 것 같아요.저도 그 편에 속합니다.

Q.수의학과에 대한 생각이 진학 전후로 달라졌어요?

A.보통 수의학과는 동물들을 좋아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막상 수의학과에 오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들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 아픈 동물들도 많이 보게 되니 사실 그런 점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Q.수의예과에 진학하기 위한 노력?

A.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부죠.일단 대학에 진학해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매진했어요.공부도 열심히 하고,교내 대회에도 많이 나

갔구요.동물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야생동물 센터에 견학을 가는 등 수의예과에 관련된 활동도 좋아요.기본은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Q.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나요?

A.저는 면접 주제가 자유여서 제가 만들어진 자기 소개서 위주로 질문을 받았고 특별한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가 해왔던 활동들과 관해서 저를 소개하는 방식의 면접을 진행 했었어요.개적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뽑아서 면접을 진행하더라고요.생물1 이나 생물2등의 질문을 뽑아서 면접관분들 앞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Q.수의학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A.수의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동물병원이잖아요?저도 입학하기 전에 그랬는데 수의학과에 오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이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방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도 수의사분이시고 소,돼지 같은 대동물이나 닭 같은 경계동물,특수 동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의 질병을 관리하는 것도 수의사죠.사람과 동물이란 서로 연관되는 질병을 관리하는 것도 수의사예요.그래서 보건 쪽에서나 일반적인 동물들의 질병 관리에서도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동물복지에서도 수의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Q. 예비 수의사로서 반려동물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반려동물이 아프면 경

제적 부담이 큰 건 사실이거든요.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갈 때 병원비가 저렴한 이유가 사람들이 계속 의료보험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 반려동물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돈을 계속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어요.필수가 된 반려동물 등록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무작정 반려동물보험을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체계를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Q.실제로 실험에서 강아지 한 마리에 여러 명이 주사?

A.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실습을 하진 않고 보통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의 동물실험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저희가 하는 실습은 해부 실습이나 독성 실험 등인데 실습은 채택된 동물로 진행합니다.

Q.수의학과는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A.정말 옛날에는,한90년대쯤까진 50명 중에2명이 여자일 정도로 여자가 적었는데 점점 여자가 많아지다가 14학년 쯤에는 딱 반반.지금도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Q.수의학과와 등록금은 얼마정도인가요?

A.예과랑 본과 때가 다른데 제가 지금 본과2학년인데300만원이 조금 안돼요.이건 저희가 국립대라서 수의대치고는 등록금이 많이 싼 편이죠.다른 사립대는 더 비쌀 거예요.

Q.수의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신경써야할 것?

A.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모든 과목에서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있어야 어느 정도 공부를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입학을 위해서는 전 과목이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한데 막상 수의학과에 오면 수학을 그렇게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본과 2학년 이채영>

많이 하진 않아요.그리고 본과에 진학하면 원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중요하죠.아직 수의사는 아니지만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대학에 진학 후 무엇을 하든 동물을 배려할 줄 알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Q.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A.처음에 입학을 하게 되면6년제가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입학하면 선배들이"예과 때는 공부하지 마"라고 장난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본과에 올라가면 정말 엄청 엄청 힘들기 때문이죠. 거의 매주 시험이 있고 공부할 양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많아요. 본과부터는 시간표가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열두시까지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실습을 해요.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하게 되는데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공부할 양이 많아서 막상 해보면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공부는 힘들어도 6년제고 한 과만 있는 단과대학이라서 선배배끼리 엄청 교류가 많아서 학교생활이 재밌어요.행사도 많고 동물 병원에 실습도 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즐거운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수의학과 궁금해? 궁금해!

대표적인 수의학과 10곳입니다. 수의학과는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 있는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대를 잘 살펴서 최대한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수의대 경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년 안에 더 많은 수의학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과소개>

수의학과는 동물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분야로 동물의 진료 이외에도 동물의 보존, 축산식품의 안전공급 등의 영역을 다룹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동물관련 의약품 및 신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연구합니다.

<적성과 흥미>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한 학문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세심하게 동물을 관찰하여 동물과 교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침착함이 요구됩니다.

<주요교과목>

수의학은 수의예과 2년과 수의학과 4년, 총 6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축, 애완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동물의 환경이나 질병연구, 위생관리, 백신개발 등을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합니다. 예과과정에서 동물의 생리, 조직, 해부학 등을 배우며 수의학의 기초지식을 배웁니다. 본과과정에서는 각종 동물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수의내과학, 외과학, 전염병학 등의 임상학적 지식을 쌓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수의기생충학, 수의병리학 등 심화된 과목을 공부합니다.

*기초과목 : 수의생화학, 수의미생물학, 수의해부학, 수의생리학, 수의조직학, 수의발생학, 수의면역학, 축산식품학

*심화과목 :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독성학, 수의기생충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방사선학, 수의임상병리학, 수의전염병학, 어류질병학, 조류질병학, 야생동물질병학

<취득자격> 국가자격 : 수의사 면허

<진출분야>

동물병원, 동물약품업체, 동물원 연구소 :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식품위생감시원, 국립보건원, 유전공학 및 생명과학 관련연구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수의직, 축산직 공무원)

<진출직업>

공향검역관,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생명과학시험원, 수의사, 자연계열교수, 축산 및 수의학연구원 등의 직업이 실무종사자들의 설문조사결과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의사 직업의 전망>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의사 전망도 좋은 편입니다.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동물원과 아쿠아리움에서 일할 수 있으며, 검역검사본부와 같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자격의 수의사도 있습니다. 수의사 연봉은 하위 25% 3300만원대, 중위 50%가 5000만원, 상위 25%가 7200만원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족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질병은 연구하는 수의사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설대학>

전공	개설 대학
수의예과 수의학과	국립9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
	사립1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수의학과 이야기

전공 과목에서 한 과목이라도 F가 있으면 유급제도로 인해 1년을 쉬고 다음년에 재수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늦잠을 많이 자는 학생들도 유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늦잠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과 때는 교양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본과에 올라오면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똑같아요. 보통 대학생들은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는데 수의학과는 고등학교를 두 번 다니는 것처럼 교실에 있으면 교수님들이 들어오시죠.^^

수의학과는 예과와 본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매년 3월이면 모든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본과로 진입식이 이루어져요. 학생들은 수의학과 입학 때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처음 가졌던 꿈을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수의학과에서는 매년 4월이 되면 수의대 뒤뜰에서 수훈제라는 조금은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수훈제는 수의 연구와 학생 실습과정 중 학생들 실험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매년 10월이면 수의학과 학생회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한마당'이라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10월이 26주년을 맞는데 매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정착을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2012년까지는 진주 남강변 공연장에서 열렸지만 공간이 좁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경상대 야외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열고 있어요.



[HOT 피플] 진주고등학교 2학년 마현민

'잘 입는다 보다 더 개성있게 입는다' 기분좋은 애기로 들려...

Q. 자기소개

진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마현민입니다.

Q. 언제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었나요?

언제라 하기보다는, 옷을 좋아하는 형과 있다 보니 영향을 받고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Q. 진로도 패션?

아뇨, 패션은 취미 일 뿐이고 패션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저만의 스타일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Q. 옷 살 때 돈을 얼마나 쓰나요?

학생이라 돈의 한계가 있다 보니 쇼핑은 자주는 못하고 마음에 드는 옷이 생기면 용돈을 모아서 주로 사곤 해요. 계절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르다 보니 액수가 몇이다 라고 딱 정해서 말은 못하지만, 하나씩 살 때는 5~10만 원 정도는 되지 싶어요.

Q. 자신이 옷을 잘 입는다 생각?

잘 입는다고 하기 보다는 같은 또래 친구들보다는 '더 개성 있게 입는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Q. 자신만의 스타일?

스트릿패션을 선호해서 프리하게 편한 옷을 주로 입는 편입니다.

Q. 이렇게 입어래 패션 팁?

기존에 있던 스타일, 색상에 어울리는 옷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돈도 아끼고, 많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Q. 이렇게 입지매 패션데려?

개인적으로 몸매가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형이 다 드러날 정도의 딱 맞는 옷만 피했으면 해요.

Q. 촬영장소는 어디인가요?

주변 지인들도 장소를 많이 물어라고요, 작은형이 운영하는 카페

입내! 인생 샷 건지러 놀러 가세요.~ 시내에 알로하 커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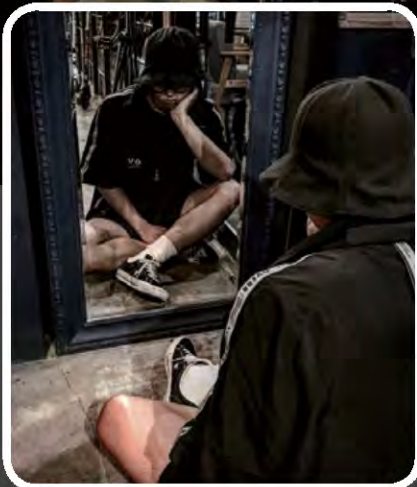
Q. 스트릿 하게 입고 싶다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추천하자면 '무신사' 라는 사이트입니다. 일반인들을 찍은 갤러리가 있는데, 개개인 다양한 코디와 그에 비슷한 코디의 의류를 추천해 주니까 옷을 찾기도 쉽고 내가 원하는 코디를 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Q. 패션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옷은 각자 개성에 맞게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옷 입는 것에 대한 부담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많지 않다면, 새 옷을 살 때는 기존에 있는 옷과 어울리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취재/ 주예진(삼현여고2)기자]



[소개합니다] 진주지역 고교 학생회장단 모임

진주의 달라진 내일을 위해 18개의 씨앗이 모여 꽃을 피우다

안녕하세요! 저희 진달래는 진주에 있는 총 18개 학교의 회장들이 모여 진주의 달라진 내일을 위해(진달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회장단 모임입니다. 연대장 이승민(진고회장)을 중심으로 총무부, 기획부, 홍보부, 통신부 총 4개의 부서로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 각 학교마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서로 도움을 주는 등 진주의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달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되었구요, 저희 진달래가 하는 활동은 페이스북 진달래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달 모여 진달래라는 이름을 걸고 봉사활동을 하



[각 학교
학생회장들]



진주고등학교-이승민



진주여자고등학교-이혜민



기계공업고등학교-김종석



삼현여자고등학교-김현서



경해여자고등학교-백이주



사대부설고등학교-문여주



대야고등학교-강덕우



경남예술고등학교-임동호



대국고등학교-허영랑



선명여자고등학교-주혜진



동명고등학교-이철원



진안고등학교-손희주



명신고등학교-강언우

[동아리탐방]
진주중앙고등학교 요리동아리 SALT!

요리에서의 소금처럼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존재가 되야죠!



요즘 여자들의 이상형하면 일명 요섹남을 떠올린다. 매력적이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요리 잘하는 남자가 데 세다. 여기 요리를 좋아하고 잘하기 위해 뚝뚝 뚝뚝 사나이들이 있다. 이번 달 동아리 탐방의 주인공은 진주 중앙고등학교 요리 동아리 SALT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동아리 시간에 깜짝 방문하여 직접 동아리 활동을 취재해 보았다.

#1. 잘 갖춰진 동아리실

동아리실에 들어서자 냉장고에서부터 싱크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식기, 환풍기 등등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조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다.



〈동아리실에 마련되어 있는 포크, 소쿠리, 칼, 프라이팬〉



〈동아리실 내부, 냉장고, 전자레인지, 식용유, 싱크대, 전자레인지, 식기도 구동이 보인다.〉

#2. 세프처럼 현란한 칼솜씨와 요리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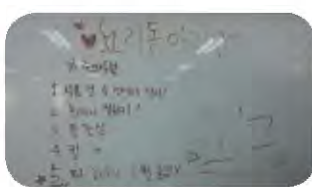
요리실습이 시작되자 모두가 청결함을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7성급 셰프가 된 듯 현란한 칼 솜씨와 손놀림으로 요리를 척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요리실습 시작 전 청결을 위해 손을 씻고 있는 요리부 부원〉



〈열심히 요리 중인 요리부 부원〉



〈안전이 우선, 동아리실 내 칠판에 적혀있는 요리실습 시 주의 사항〉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부 부장〉

#3. 너무 맛있었다. 함께 음식을 나눠먹고 청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동아리실을 꽉 채우는 기분좋은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했다. 취재 중인 기자에게도 어느샌가 입에서 군침이 돌고 있었고 서서히 하나둘씩 음식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기대감속 시식, 음식을 맛봤는데 정말 팔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비주얼과 맛에 조금 놀랐다. 요리가 완성되자 부원들은 웅기충기 모여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을 한 식구처럼 서로 나누어 먹고 다 먹은 후에는 다 함께 정리하고 깔끔하게 청소를 했다.



〈완성된 크림 스파게티〉



〈자신이 만든 음식을 사이좋게 먹고 있는 요리부 부원들〉



〈설거지에 열중하고 있는 요리부 부원〉

INTERVIEW

“축제때 저희 SLAT 요리 맛보러 오세요.
내년에는 여학생들 부원이 들어 오길 기대합니다.^^”



〈SALT 부장 2학년 강민석〉

Q.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주 중앙 고등학교에서 요리 쪽으로 관심이 있거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의 요리의 끼를 방출하는 요리 동아리 SALT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남자만 23명으로 올해 중앙고 유일한 남학생만 있는 동아리입니다.

Q. 동아리 이름이 SALT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알다시피 SALT가 소금이라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인 소금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꼭 소금같이 필요한 존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Q. 평소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일단 시험 2주 전부터는 자습을 하고요. 동아리 시간이 2시간 있을 때에만 요리실습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 있는 날로부터 3,4일 전에 카톡 단톡방을 통해 주제를 공지하게 되면 부원들이 주제에 맞는 요리 재료들을 챙겨 와요. 동아리 하는 날 학교 올 때 챙겨오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점심시간에 외출 중을 받고 나가서 사 오는 애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동아리 시간에 2시간 중에서 한 시간은 요리실습을 하고 한 시간은 요리한 것을 먹고 정리를 해요.

Q. 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선 저희가 조를 나눠서 실습하고 한 조에는 보통 4명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학생이기도 하고 크게 부담이 안되는 선 안에서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재료를 살 수 있는 요리 주제를 주고 선정하곤 해요. 한마디로 주제 선정 기준에는 재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죠.

Q. 부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다면?
웬만하면 요리 쪽으로 진로가 관련된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다음으로

는 요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위주로 뽑고 있어요.

Q. 동아리의 장점을 어필하자면?
우선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실습을 하는 거라서 안 친했던 친구들끼리 쉽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의 요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죠.

Q. 학교 축제행사 때는 무엇을 하나요?
축제 공연하기 한 10분 전까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이컨치즈말이 주먹밥, 쿠키, 컵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판매 수익은 모두 기부를 해요. 올해 축제 때는 아마 매운 어묵,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Q. 동아리 활동 중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올해 들면서 부원들이 3명을 제외하고 다 나가는 일이 발생해 동아리 최저 인원 15명을 못 맞춰서 동아리 해체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동아리로 옮겨야 하나 남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힘들었는데 동아리를 다시 일으켜야겠다고 결정해서 열심히 홍보활동에

노력했더니 남학생 20명이 들어오면서 해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Q. 다른 동아리들과는 다르게 부원들 중 여학생이 없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남고 특유의 칙칙하고 식막함이 조성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여학생이 있구나 없으나 밝고 화기애애하고 오히려 남자애들끼리 있으니까 편하고 좋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여학생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군요.

Q.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다 같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가하면서 요리 실력을 확 올리는 것과 앞으로 다가오는 축제 때 친구들을 위해서 맛있고 만족스러운 음식을 준비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발 재료 잘 챙겨오고 열심히 참여하고 우리의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뤘으면 좋겠다. 파이팅!!!

SALT 깨알 인터뷰!

신입부원 박성덕 군(18.남)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요리를 자주 하고 좋아해서 SALT의 문을 두드렸죠. 동아리실에서 처음으로 요리를 해봤는데 프라이팬으로 파스타를 볶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남들 앞에서 요리 실력을 뽐낼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SALT 차장 이도경 군(18.남)
“작년에 저희 선배들 중 한 명이 요리하다가 칼에 심하게 다쳤었어요. 그때 너무 속상했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부원들을 더 안전하게 지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아리 차장일에 열심히합니다. SALT를 통해 몰랐던 요리 레시피를 알게 되고 요리를 통해 어색하고 서먹했던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돌아가는 요리 실력을 느낄 때면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항문은 안녕하십니까?

청소년기에도 치질 잘 생겨... 방심은 금물

치질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청소년과 치질은 잘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중에 치질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치질은 솔직히 말해 그런 증상이 있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꺼려하는 부끄러운 병이다. 치질은 항문이 찢어지거나 인근에 혹이 생기는 등의 다양한 항문질환을 아우르는 말로 치루, 치핵, 치열을 합쳐 놓은 말이기도 하다.

보통 치질을 얘기할 때 생기는 증상은 치핵인 경우가 많다. 항문 주변에 혹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생긴 위치에 따라 내치핵, 외치핵으로 나뉜다. 이러한 치핵은 항문 출혈과 항문 돌출을 일으키며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 과한 힘을 주어 배변하는 습관이 원인이 된다.

치열은 항문의 입구부분이 배변 시 찢어지게 되어 통증과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통 딱딱한 변을 보면서 발생한다. 증상이 잦아수록 점점 더 찢어지면서 내괄약근까지 노출되어 장시간 통증을 유발하

기도 한다.

치루는 항문 내에는 대변이 빠져나올 때 항문 벽의 손상을 막기 위한 미끈미끈한 점액을 만들어내는 샘이 있는데 그것이 세균, 염증으로 인한 감염이 되어 고름을 형성해 항문 주위에 농양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름이 많아지게 되어 항문 주위 약간 곳을 뚫고 퍼지게 되는데 이때 매우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절반이 치질을 앓을 정도로 흔하고 청소년 환자도 적지 않다. 2016년 국내 중고등학생 치질 환자 수는 약 2300명에 달했고, 특히 중2 때까지만 해도 100명이 안 되던 환자 수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3 때 갑자기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입시 전쟁이 시작되면서 학원 수업뿐 아니라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 읽는 배변습

관은 배변 시간을 길게 만들어 혈액 순환을 원활하지 않게 해 치핵(항문의 압력 증가로 혈관이 늘어나 피가 나고 바깥으로 혹이 튀어나오는 것)을 유발할 수 있다.

치질의 주요 원인은 딱딱한 대변, 지속적으로 변을 보기 위해 항문에 힘을 주는 경우, 복압이 증가된 경우, 골반 바닥이 약해진 경우가 치질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예민한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치질 증상이 있음에도 부끄러워 말하기 꺼리고, 때로는 가법게 넘기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질환이라 생각해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대변 볼 때 피가 나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치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치질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샤워시에 따뜻한 물로 엉덩이(항문)를 적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고 한다. 가급적 딱딱한 의자는 피하고 방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아침식사는 거르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양의 수분섭취를 하도



록 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처럼 부끄러워하고 숨겨서 병을 키우는 청소년 치질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방치하거나 숨기는 동안 치질은 악화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항문을 위하여, 이젠 겁먹지 말고 부끄러워 하지도 말자!

[취재/ 이동언(명신고2)기자]

왜? 여학생이 다니면 여학교가 되는 것일까요?

여학교는 있는데 남학교는 없다?... 학교에 다니면 그냥 학생일 뿐이다.

“저는 ○○여중/여고 다녀요” “저는 ○○중/고 다녀요” 이런 말을 학생들은 많이 들어보고 또 말해 봤을 것이다. 참 이상하지 않은가? 여학교는 있어도 남학교는 없다. 심지어는 여자만 다니는 대학교까지 ‘여자’라는 단어가 붙는다. 이렇게 학교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지 알 수 있는데, 대체 왜 여자가 다니는 학교에만 여자라는 단어가 붙을까?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로 가보자. 조선 시대의 교육에서는 남성이 그 대상이었다. 김홍도의 서당을 보면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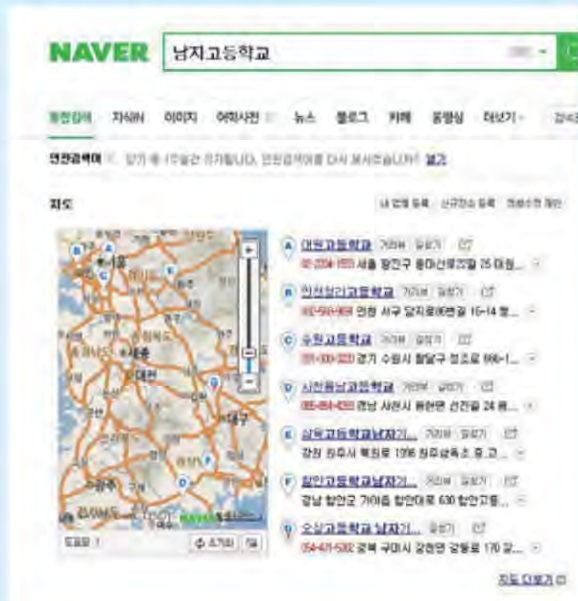
〈▲1892~1907년대 이화학당 초기 여학생들〉

수 있듯이, 남자아이들만 두 열로 쭉 모아두고, 남자 스승이 남자 제자를 훈내고 있다. 그 그림에 표현된 사람들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조선 시대나 이전에 여자가 교육에 참여한 적은 있었을까? 고려 시대 때나 그 이전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교육의 상세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데 제한이나 차별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시대 유교적 사상이 들어오면서 여성은 남성이 받는 교육과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 중기에서 말기에는 유교적 관념이 더 심해지며 여성이 남성과 같이 서당에 다니다던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때문에 근대 이전의 학교는 여성이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렇듯 ‘여’학교는 근대화 초기의 산물이다. 근대 이전에는, 배우고 때로 익히기가 남자(보편 개념으로서 인간)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다 근대 들어서면서(거칠게 말하면, 우리나라 근대 들어서는 일제시대) 여자도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여학교가 생겼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1920년대에 ‘여학교’가 등장함이 역사 기록에서 확인 된다.

하지만 현대에, 굳이 ‘여성이 교육을 받는다.’를, ‘여성이 학교에 다닌다.’를 의미에 두고 학교의 이름에 ‘여자’를 붙여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남학교에는 ‘남자’라는 말이 붙지 않을까? 여전히 남성이 교육받는 대상이기 때문? 아직도 여성이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의외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을 의외로 두는 것이 의미 있어서 강조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겠지만, 현대와 맞지 않는 불필요한 표현을 꼭 가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특정 성별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다. 특정 성별이 어떤 것을 배운다고 해서 거기에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 왜 우리는 무의식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차별을 학습하는 것인가? 배우는 사람은 그저 학생일 뿐이다.

[취재/ 김가나(경혜여고1)기자]

10대들의 화장이 문제라고?

청소년 화장, 이젠 금지가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때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책상위에 펴놓고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은 이젠 학교에서 흔히 광경이 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화장법을 공유하거나 상배방에게 화장을 해주며 노는 것은 또 하나의 일상이다. 요즘 10대들은 화장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주위의 어른들의 표정은 좋지 않다. “학생들은 학생다운 때(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이쁘다”며 화장은 10대들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어른들과 달랐다. 시대가 변했으니 어른들도 청소년들의 화장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어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화장은 학생이 해서는 안 되

는 것이고 교칙을 강조하며 간섭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을 제재한다. 즐거워야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화장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나 선생님들의 부정적인 시선에서도 화장을 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 평소 화장을 즐겨 하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들어 봤다.

A양(17세) – 제가 화장을 하는 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해서 해요. 학생으로써 너무 진한 화장은 아니니 적어도 BB크림이나 틴트 정도는 어른들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B양(17세) –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건 따지면 어른들 때문이잖아요. 화장을 금지시키고 말리기보다는 지금 나이에 맞게 잘 할 수 있게 가르쳐 주고 건강에 문제 없게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좋게 지켜봐 주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요.

C양(17세) – 저는 화장을 하면 재밌기도 하고, 나의 단점을 보완하며 변해가는 내 얼굴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른들이 화장을 하면 학업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화장과 학업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어른들이 학생들의 화장을 제재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초·중·고교생 5,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가 화장한 경험이 있거나 화장을 하고 있는 ‘화장 유경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약 51%는 만 13세 이전부터 화장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금지와 반대가 학생들의 화장을 막고 건강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학생들의 화장이 일반화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많은 학생들의 요구라



면 화장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닐까? 학생인 시기에 맞는 화장법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화장품을 구입할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과 학교가 해야 할 일이라 할 것이다.

요즘 10대들에게는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가 화장이다. 이런 모습을 어른들이 이해해주고 지켜봐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취재/진주 중앙고(진수민1)기자]

도대체 왜 우리 머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요?

우리가 다니는 곳은 학교지 군대가 아니다



선생님이나 어른들은 '학생이 학생다워야지'라고 말한다. 대체 학생다움이란 것이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른들 말 잘 듣고 교칙 잘 지키고 화장파마, 염색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학생다움'이란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싶다. 물론 학생은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어른들의 눈에 보기 좋고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은 인간이 가져 할 기본권마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일까?

왜 학생은 머리를 길러서는 안되는 존재일까? D고의 두발 규정은 앞머리가 눈썹에 닿지 않고, 옆머리, 뒷머리를 말끔히 쳐서 올려야 한다. 매달 생활검사를 통해 교칙에 어긋난 두발 상태인 학생들에게 머리를 규정에 맞게 정리해 오라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준다. 학생회 회의를 통해 두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변한 것이 없다. 학생들은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왜 자신들이 군인처럼 일명 뽕뽕이 머리로 생활해야 하는지 인정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1항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적혀 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소년 역시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가 있음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학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무조건 모든 학생들의 두발에 제한을 두는 건 아주 기본적인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법과 정의를 배운다. 교과서에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 학교란 곳에서 오로지 청소년이라는 신분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며 편의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두발규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학교라는 명칭조차도 일제의 잔재라며 초등학교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왜 학생들의 두발규제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듯 그대로 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두발규제 역시 사라져야 하는 일제의 잔재다. 학생들은 말한다. '우리가 다니는 곳은 학교지 군대가 아니다.' 라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두발규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나 선생님에게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쉽지 않다. 한 학생이 학교 규칙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어 학생회에 건의를 했는데 당시 선생님께서 들은 소리는 "학교가 싫으면 전학을 가라." 라는 식의 반응이었다고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주체다. 그들의 이야기와 생각도 중요하다. 또한 정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두발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여전히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학교와 선생님들의 발전적인 고민도 있었으면 한다.

학생이니까, 학교니까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만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공동체공간 이니까 규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룰을 스스로 지키며 룰을 어겼을 때에도 함께 합의한 처벌을 주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고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차음엔 서둘러 모르지만 학생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취재/ 김해천(동명고2)기자]

여러분의 학교는 어떤가요?



<출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 지역 청소년이 재보한 실제 학칙입니다.

[기고]

나이주의에 저항하자!

몇 살이야? 19살? 내가 형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있을 만하면 듣는 말이다. 유형도 다양하다. 대놓고 반말부터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자기 멋대로 반말을 쓰다가 "아, 말 편하게 해도 되지?"하며 차마 내가 "아니오"라는 답을 던질 수 없는, 허락을 구하는 듯한 통보를 당하기도 한다. 오히려 익숙하다. 나보다 나이 많은 이가 반말을 하는 게, 아랫사람 대우를 하는 게 말이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배운다. 웃어른에선 높임말을, 공손한 표현을 써야 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분하여 다르게 행동해야 함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새로운 기준을 배운다. 한두 살 차이에도 각뿔이 높임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않는다면 공격당한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는 나이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복잡한 규칙을 습득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회화의 과정은, 우리가 사람을 나이에 따라 높낮이를 달리 대하게 하도록 고착시킨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질문을 던지기를 꺼려한다. 한 쪽이 반말을 하고, 다른 한 쪽은 높임말을 하는 상황은 분명히 상하 위계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나이의 높낮음에 따라 사람의 높낮음이 정해지는 거다. 과연 옳은가? 나이라는 임의의 숫자, 그리고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를 묻는 그 의미 없는 기준(사실 '한국 나이'는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를 무시하기까지 한다. 이를테면 '빠른 년생'이 그 예.)에 인간의 높낮음을 따지는 것이.

청소년운동은 '나이'라는 것을 깊게 분석한다. 사회에서 나이는 결코 삶의 길이를 나타내는 숫자

가 아닌, 삶의 형태를 좌우하는 장치이자 관념이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상하의 위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특정 나이대의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는 (또는 이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나이는 시민으로, 인간으로, 또는 성적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청소년은 나이위계의 최하층에 존재한다. 쉽게 반말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만만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고, 객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다. 청소년은 나이-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다움' 또는 '청소년다움'을 강요받는다. 청소년은 비청소년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청소년(학생)'이라는 기준에 자신을 맞추게 강요받으며, 스스로를 검열한다. 청소년은 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들은 20살이 되지 못해 미성숙하기에 선거권을 비롯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며, '시민이 되어가는 존재'로 대상화된다. 동시에 '만들어지는 과정의 인간'이자, '성(性)'적이어서는 안 되는(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나이의 적고 많음 따위를 기준으로 높낮이를 따지지 않으며, 높임말과 반말의 구분은 친한 정도에 따라 달리하자. 나이의 정상성에 저항하자.

청소년운동은 이러한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나이

를 '나이주의'라 이름 붙였다. 청소년에 대한 억압과 차별은 나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으며, '나이'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곧 청소년을 억압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청소년 해방의 해결책은 '나이주의의 철폐'에 있다.

나이주의는 다양한 층위를 가진다. 나이주의적 사회는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에게 '정상성'을 부여하고, 이는 상황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식수요리력을 표하고 성적 주체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젊은 남성 비청소년'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식수요리력을 표할 경우 추하다고 여겨진다. 여성은 성적 주체로 위치하지 않으며, 늙은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젠더에 따라 '젊음'과 '늙음'의 관념은 달라진다.

나이주의는 모두의 문제다. 나이주의적 사회에서 '정상성'은 특정 시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들은 단 한 번도 '정상성'에 위치하지 못한다. 정상과 비정상을 가로짓는 이데올로기는 배제와 차별을 낳는다. 우리는 모두의 해방을 위해, 의미 없는 숫자에 저항해야 한다. 적어도, '나이'를 의미 없는 숫자로 퇴색시켜야 한다.

끊임없이 불편하자. 조금의 불편함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 나이에 따르는 관념을 무너뜨리자. 나이의 적고 많음 따위를 기준으로 높낮이를 따지지 않으며, 높임말과 반말의 구분은 친한 정도에 따라 달리하자. 나이의 정상성에 저항하자. 우리의 해방은 모두의 해방이며, 나이로부터 삶의 해방이다.

글쓴이 / 박태영은 진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바보회>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글을 쓰는 글쟁이이기도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뜻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카카오톡 (박태영 ID: hexatame)으로 연락 주세요!



[고발, 이의 있습니다⑥]

학생부종합전형의 허상을 고발한다

학생입장에서 바라 본 대입전형의 문제점

201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전형비율이 발표되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90점 이상이 1등급. 전체 모집 인원의 74%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 2017년과 비교해 약 3.5%p 증가한 수치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은 증가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은 감소했다. 수시 전형 중 86.4%가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은 32.3%였다. 특히 상위권, 인 서울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 수는 더 많다. 2007년 입학사정관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해마다 그 몸집을 불렀고, 많은 학생이 그것을 통해 대학 문을 통과한다.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까? 당연히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진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는 학생들 역시 많다. 실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태와 문제점을 하나씩 얘기해 보려 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육 평등'을 깨뜨린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나쁜 학생'을 구별하고, '돈이 많은 학생'과 '돈이 없는 학생'을 구별한다. 우선 전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한 학생이 3년 동안 학교에서 치른 5개 학기의 내신 성적의 평균,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과 동아리 활동, 탐구활동 등을 비롯한 학생의 비교과활동, 봉사 활동, 출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은 그것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이 중 교육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요소는 물론 '내신 성적'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 취지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는 달리 내신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기록부의 요소들도 입시에 반영한다. 이 덕분에 내신 성적이 불리한 학생들이더라도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비교과활동을 통해 내신 성적의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정말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학생부 몰아 받기'를 당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취지와 달리 내신 성적이 높은 학생의 생기부를 가득 채워줘서 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확률을 더 높이는 제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미 변질 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다.

'돈이 많은 학생'과 '돈이 없는 학생'을 구별한다는 후자의 경우는 어떨까? 아마 우리나라만큼 사교육이 성행하는 나라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사교육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초 요소인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 해야 한다. 하지만 공부 잘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진다. 물론 재능의 영향도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내신 시험의 성적을 따져본다면, 재능보다는 어릴 때부터 쌓아온 이해력과 암기력이 고점의 바탕이 된다. 성공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이해력과 암기력 능력들은 사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릴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많은 중·고등학교의 영수 학원, 암기위주의 족집게 학원 등은 학원을 다니는 자체만으로 성적이 오를 여지가 있다. 당연히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은 상대적인 불평등에 놓이게 된다. 또한 내신 성적이 아닌 비교과 활동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는 갈린다. 인터넷 검색창에 '학생부종합'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다수의 입시컨설팅학원 홍보링크가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부컨설팅 업체들은 적게는 1회당당 30~40만원, 많게는 1년 기준 1000~2000만원의 돈을 받고 체계적으로 학생부를 관리해준다.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그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야 할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의 입맛에 맞춰 상업적인 컨설팅 업체가 인위적으로 꾸며주는 속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생활기록부 대리 작성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누가 과연 대학입시가 공정한 경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참된 학습'을 깨뜨린다.

고등학교 2학년인 나는 내신 시험 때면 항상 시험과목들에 대해 나름 착실하게 준비했고 꽤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신 시험 그 자체에 대해 항상 의문부호를 품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번 시험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얼마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 있을까?', '이번 시험공부가 내 인생에 시험성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남는 것이 있을까? 이 지식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까?', '고작 점수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라면, 너무 무의미하지는 않은가?'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면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시험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는 나를 발견한다.

오늘도 학교에 가고 내일도 늘 그럴듯 공부를 한다. 우리 학생이니까? 대학에 가야 하니까?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는 이것이 정상일까? 시험이 '최선의 방법'일까? 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야 할 고등학교의 많은 지식들이, 한 번의 내신 시험에 이용되고 사라지는 휘발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괴상한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방식, 어이없다!

현행 학종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괴상한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방식'을 꼽을 수 있다. '세부능력특기사항'은 교실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의사소통하며 교사가 느낀 학생의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은 완전 딴 판이다. 모든 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교사가 모든 학생의 특성을 꼼꼼히 관찰하고 전 학생의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록해 준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둘째, 내신 성적 1~2등급 학생의 생활기록부에만 세부능력특기사



항이 기록된다. 셋째, 교과별 세부능력특기사항을 학생이 작성해서 제출한다.

둘째, 셋째 경우는 문명이 문제가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에서도 벗어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다. 한 교과의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수는 적어도 100명 이상이다. 담임교사가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벅찬 일인데, 100명의 학생을 전부 관리하고 생기부에 '세특'을 적어주는 작업은 다른 어떤 노동보다 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한 교사가 이렇게 많은 학생의 '세특'을 감당해 내야 하는 생기부 기록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썩 1등급' 우대받는 현행 입시 제도



올해 2017년이다. 15~20년만 거꾸로 돌아가도, 고등학교는 '역전의 장'이었다. 학생들은 수능 대박을 노리며 공부했고, 어느 학생에게나 희망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있는 법. 이런 '인생은 한방' 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등장한 것이 '학생부 교과'라거나 '학생부 종합' 같은 새로운 전형이었다. 시험 한 번에 올 인이 아니라, 최소 5학기 동안, 10년의 기회는 주고 집중도를 분산시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몸집을 불려 나갔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은 축소되었고, 많은 대학이 여기에 동참했다. 대학 입시의 안정성을 높이고 큰 낙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

서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정시입학의 문이 너무 좁아져 1학년 1학기 때 받는 내신 성적부터 미래의 입학대학이 정해지는 비관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8월을 넘기며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원서를 접수할 대학을 완전히 정하고 자소서를 준비하겠지만,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앞으로의 내신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능에 맞춘 계획을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많은 2학년 학생들은 '나는 정시 파이터야' 하고 주위에 알린다. 이미 망쳐버린 내신, 관리하지 못한 생활기록부, 밤샘공부의 귀찮음 등에 떠밀려 '수능'이라는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썩 1등급'인 학생들만 우대받는 현행 입시 제도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교육은 행복한 나라 만들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언제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어떻게 교육이 과한 경쟁을 부추기고 그것을 정당화하기만 급급할까? '인 서울'로 지칭

하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인생은 패배자 취급받고, 자신부터 학벌에 벌벌 떨고 차별한다. 각자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화된 시스템에 집착한다. 그 과정에서 대열에서 이탈한 학생들은 버려진다.

어느 책에 쓰여 있던 글귀가 되새김질 된다. '19세의 '완벽한' 인재 1명을 만드는 교육보다는 19세의 '행복한' 인간 60만명을 만드는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을까? 좋은 제도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채 결국 불평등과 반칙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하고는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면 좋겠다.

[취재/박승민(진주교2)기자]

[JOB을 잡아라] 17년차 베테랑 문정식 버스 기사를 만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엔 버스기사를 꿈꾸는 청소년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과 시내버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거의 매일 이용하게 되는 것이 버스와 늘 마주치게 되는 분은 바로 버스 기사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직업으로서는 어떤 특징과 매력에 있을까? 또 어떤 고충과 힘들어 있을지 궁금하다. 오늘도 시민의 편의를 책임지며 진주 곳곳을 누비는 버스 기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필통에서는 시내버스 삼성교통에서 근무중인 문정식 기사를 만나 여러 얘기를 들어 보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 교통의 버스 기사로 17년째 근무 중인 문정식입니다.

Q. 버스 기사를 하기 위해 따로 시험이나 연습이 필요한가요?

버스 기사를 하기 위해선 일단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해요. 또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버스운전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버스 앞에 보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격이 갖춰진 사람을 버스 회사에서 절차를 밟아 채용을 하는거죠.

Q. 시내버스의 경우 계속 노선이 바뀌어서 운행을 하나요?

버스를 처음 운행하는 예비승무원은 자기 버스를 배정받기 전까지는 매일 운행하는 노선이 바뀌죠. 예비승무원 과정을 거치면 다음은 전속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차를 배정받죠. 자신의 버스를 배정받으면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고정적으로 그 노선만 운행합니다.

Q. 출퇴근 시간, 식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회사원처럼 9시 출근 6시 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시간표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저희 회사는 2교대를 하고 있는데 평균 8~9시간 근무를 합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하다 시간이 나면 식사를 하죠. 식사 시간이 되면 식당에서 밥을 준비해줍니다. 그때 가서 먹으면 되죠. 새벽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아침밥도 준비를 해줘요.

Q. 운행하다 급히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선이 긴 차량인 경우엔



더 그렇죠. 급하면 기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주유소예요. 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얼른 가서 해결하죠. 생리현상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다 보니 생리현상을 참는 것 때문에 버스기사들이 병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할 땀 음료나 커피 같은 걸 잘 안 마셔요.

Q. 임금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지금 현재 진주 시내버스를 보면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이 책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Q. 왜 임금이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자체별로 임금수준이 차이가 많죠. 제가 볼 땐 진주시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내버스 사업이 운송수익금을 벌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버스비가 1300원 900원 정도 하고 있죠? 실제로 버스회사가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선 지금의 버스요금에 2000원대 2500원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버스요금을 올려버리면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서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해 놓고 재정 지원금을 투입해요. 버스는 공익사업이고 그냥 돈벌이로 볼 수 없는 국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공공의 영역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해 기사들의 생활수준이나 임금수준을 향상해 주는데 진주 같은 경우를 보면 타 도시보다 버스 정책에 지원하는 재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는 대부분의 기사들이 최저 임금수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Q. 버스운행 중 힘든 경우는?

이해가 잘 안될지 모르지만 버스 운전은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노동이에요. 하루에 사람을 대하는 게 많으면 500명 넘으니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술 취한 사람, 욕하는 사람 등등. 승객들이 버스에 타면서 운전 기사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감질이지요. 그런 부분이 힘들 때가 많아요.

Q. 요즘 학생들도 불만이 많은데 최근 버스 노선개편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문제가 많죠. 시에서 노선개편을 할 때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은 공공성, 즉 시민들의 편의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이번 개편이 '감차가 목적이다. 예산 절감이 목적이다'라고 말해요. 감차는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모순이죠. 옛날에 비해서 진주시의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어요. 도시는 커지고 인구는 늘었는데 진주시는 버스를 줄이고 있죠. 결국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노선에 수요가 많은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노선을 정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시내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못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봐요. 시민들은 진주시에 요구를 해야 해요.

Q.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가요?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승객들이 욱보다며 음료수를 줘요. "수고하십니다" 이야기하면서 버스를 타는 분을 보면 흐뭇하죠. 또 진주는 도심이 벗어나 외곽 농촌 지역도 많이 다니게 되는데 할머니들이 오가시는 길에 고추나 감자 같은 걸 먹으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스트레스들이 확 날라 갑니다.

Q. 버스 이용객들, 특히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일단 버스를 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사도 차를 조심해서 운전하더라도 손잡이를 안 잡으면 위험해요. 특히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폰에만 집중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에요. 정말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차할 때 미리 벨을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사가 다음 역에 서야 하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거든요. 또 요

즘 학생들은 어른들 눈치를 안 보더라고요. 학생들끼리 버스 안에서 욱을 엄청 해요. 자신들은 그것이 욱인지 모르나 할 정도로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버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니까 욱은 좀 삼가 줬으면 좋겠어요.

Q. 직업으로서 버스기사를 얘기해 주신다면?

솔직히 학생들에게 권할 직업이 아니죠. 아마도 미래에 원하는 직업이 버스기사인 청소년도 없을 겁니다.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버스기사가 되겠다고 하면 반길 리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세상엔 버스 기사도 있어야 하고 농민도 있어야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우리사회는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을까요?

전 버스기사도 참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 운전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민들을 위해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학생에서부터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도 특정집단이나 직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고 대우받는 세상으로 변화된다면 먼 훗날 우리 청소년들도 버스기사를 좋은 직업으로 느낄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취재/ 김해천(동명고2) 이동연(명신고2)기자]

[지역 이슈]

청소년, 시내버스 개편 이후 이용 불편

진주시민단체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69.4% "버스 기다리는 시간 늘어나"···65.2% 불만 표시

"진주지역 학생들은 시내버스 타기가 불편하고 힘들다." 진주시민행동이 시내버스 개편 이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고교생 1562명이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6개 중·고등학교 측 협조를 구해 진행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배차간격과 운행소요 시간, 혼잡도, 서비스 등이다.

먼저 학생들은 배차 간격에 대해서 69.4%가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했으며, 감소했다는 학생은 6.7%였다. 노선 개편 이후 배차 간격에 대해 65.2%가 불만을 표시했고 10.5%가 만족했다. 운행 소요시간은 늘어났다 34.9%, 비슷하다 59.7%, 감소했다 5.4%로 조사됐다. 38.9%가 불만족하다고 답했고 16.2%가 만족한다고 했다. 혼잡도는 증가했다 60.3%, 비슷하다 33.9%

였으며, 환승을 이용하는 1202명 학생들 중 50.9%가 환승 대기 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버스 서비스는 불만족 53.4%, 보통 35.8%, 만족 10.8%였다.

이번 설문조사 시점은 진주시가 전면 노선개편 후 빗발치는 시민 불편 호소에 두 차례나 추가 개선 조치를 한 이후였다. 설문조사 결과대로라면 진주시의 추가 개선 조치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별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진주시가 지난 7월 16일 진주참여연대가 제안한 버스 노선개편 관련 공개토론회를 시기상조라며 무시해버린 일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곳이 행정 기관이다. 알아서 할 터이니 가만있으라는 태도는 진주시가 버



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외면하고, 시민들이 불편에 적응하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감차와 노선 개편은 4사 업체가 합의로 시행했으며 시민불편사항은 3회에 걸쳐 개선 중이라며 여론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통편집국]

To. 농구장인 민씨



하이 민씨!! 나 너랑 가장 친한(맞지...?) 친구 184.5cm. ㅎㅎ
농구로 맺어진 인연답게(땅은 피보다 끈끈한가보) 다른학교로 배정되
도 계속 친한게 너무 신기하다. ㅎㅎ 내가 귀속사 들어가서 한참 힘들
어 할 때 끝까지 내 오빠가 들어주셔서 고마워(≥▽≤)~

비록 내가 농구는 이제 많이 안하지만 너 심심하면 형이어서 발라주
다. ㅎㅎ 앞으로 둘이 영원히 가자.(나 너 알고 친구없어...ㅠㅜㅠ) 그리고
고 하차(악)로 불릴거지(안... 내 친구해줘서 고마워 ㅎㅎ

-FROM. 귀 불나로 먹고사는 민사친구가

To. 이정현



중앙고는 살만하냐~~ 동료냐...여기는 좀 많이 힘들다... 흐려라~~ 너가 안고 불
었다고 해서 엄청 부러웠는데... 사실 아직도 부럽다... 여가 너무 힘들다... 살려
줘라... 여방 때 같이 부산 가기로 해놓고 못 가서 미안하다하...ㅠㅜ
겨방 때 같이 알바해서 부산 꼭 가자! 중딩때부터 내가 맨날 막속 깐들ㅠㅜ
페북 태그했었는데 다 가는걸로~~ 거지같은 고등학교 빨리 졸업해서 연하하고!
버스 시간 걱정없이 불기조기 놀러 다녀자! 일본도 가자! 대만도 가고~ 태국도
가고~ 여가져가 다 가자! 서툰 끝내면 영화보러 가자 룻서 의사 인간적으로 너
무 편했던 것 같다.ㅋㅋㅋ

만날 내가 개소리하면 욕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주평의 하이씨페루 위아
이리 이리리베리리
-From. 제일여고 빈치노덕후

To. 민혁에게...

민혁이 알고 지낸지 벌써 4년인데 앞으로
더 많이 놀고... 내기도 많이 하자!! 내기해
서 친 돈 다 돌려 받을거니까... 긴장타고 조
만간 불링치러 가자~~

-FROM. 대하고 2학년반 김장현

TO. 태호, 원범, 태완, 우정, 성은, 고운, 가영에게

안녕~ 내가 누군지 아냐? 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편지
를 쓰게 되네... ㅎㅎ

참~ 내가 글썽주머니 없어서 딱히 적을건 없고 해해... 각자
에게 할 말을 적어볼까 해~
먼저 태호! 거의 항상 같이 하는게 많은데 내가 가끔 틱



틱거리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영어 절대 끝지 오셈... 다
음에 원범이! 항상 밝은 모습이 보기 좋은거 같고 배드민
턴 많이 치면 놀까? 다음은 태완이! 모든일에 긍정적이
야.ㅋㅋㅋ 부정적인 일까지도 ㅎㅎㅎ 흔들도 피망가더냐...
농구 나 따라 잡려면 아직 멀었다! 크흠~ 여자애들한
테는 딱히 할 말은 없지만 ㅎㅎㅎ 먼저 강성은! 사진 다 똑
같아 보이니까 예쁘다라고 말하라고 압박중 하지마...
다음에 정고운! 예전 보름달 시절에 이따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반달이라서 좀 아쉽다. ㅎㅎ 다음은 이가영! 보
급식소에서 때린거 미안하고 ㅎㅎㅎ 삼각김밥 해어스타
일 이야기할 바란다.~ 하차(악)로 전복점! 참 할말이 많
지~ ㅎㅎㅎ 근데 두 하차(악)한 할께! 내가에서 이긴 내가로
소원들어주고... 나머지 하나는 페메로 할께! ㅎㅎ
이제 다 끝났는데 진짜 하차(악)로 이제 고딩 중간쯤인
데 다들 화이팅하고 대학 올라가도 치공처럼 다사 안
다자! 내나 너네들 많이 아끼는 거 알지! 특히... 그 그
럼이안 뽀!

-From. 2017.8.18 존잘 민후가

TO. 7반 공주들에게

안녕 공주들~~ 내가 누구게? ㅎㅎㅎ 다 알고있겠지??
워~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권투에 의해 쓰게 됐는데 나쁘지 않을거 같음. ㅎㅎㅎ 사진은 작년에 다같이 부산
놀러가서 찍은거 쓰고 싶었는데 뿌리의 미모를 모두가 만족시켜지 못했어... 그래서 뿌리가 사진 형찬해줘라
~ 모두 박수~



어어 근데 파란도복이 젤 예뻐당
~ 모든 담임선생님과 함께 이태
저해 행복한 1년을 보낸거 같아!
반장부터 7반 구성된 함나함나
가 다 의이있고 소중한 일원으로
남아주셔서 모두가 좋았을꺼라고 믿
어! 난 진짜 너네 다 좋아♡

남은 2학기도 모두 각자의 반에서
말하게 보내고 갈수 있을진 모르겠
지만 기말 치고 또 다함께 진주
를 드자~~ 내년이면 벌써 고3, 열
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대학가고
재수없이 다 붙어서 마음편히 놀
자~~ 7반 완전 사랑해♡

-From. 7반!

To. 5-1 신진 프렌드!

뿌리가 만난지 벌써 6년째가 지나가고 있어... 처음 중등학생때 만났을때는 뿌리가 이렇게 쫄쫄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계속 알고 지내는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해~~ 중학교 5학년때부터 항상 학교 하치고 놀고 그랬었는데... 졸업하고 연락이
끊겨서 이제 못보냐 했었어... 중학교 2학년때 어찌 어찌 다시 연락이 되서 지금까지 만나는게 고맙기도 해~~ 그리고
중학교 졸업할 때 나 혼자 졸업식을 할뻔했는데 하영이랑 채민이가 와주서 외롭지 않은 졸업식이 되었고, 지금은 서로



생일하다 편지 써주고 케익
도 써주고~ 밥도 같이 먹고 열
하다 좋은지 몰라... 이번 여름
방학때는 준영이가 못갔지만
이월드 다음으로 같이 갔던 여
행이었고 처음으로 같이 계곡
도 가본거였고 뿌리 추억이 많
다 더 생겨서 기분이 좋아~~
다음부터는 준영이도 꼭 같이
가자 친구들아.. 사랑해!♡

-from. 대하고 영주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 애 애 인 사 길게 사랑해야 할 사람
우리 모두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장애인 : 『장애인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사람.』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비교”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 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다.

놀이터



차이점 : 우리나라에서는 휠체어로 탈 수 있는 그네를 쉽게 찾아 볼 수 없지만 장애인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 같은 경우 다양한 휠체어 그네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느낀점 : 이 사진을 비교해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잘되어있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부족해 보임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다.

교통수단



차이점 : 장애인 이동수단인 저상버스사진을 보면 우리나라는 리프트 폭이 좁고 손잡이가 없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선진국의 저상 버스를 보게 되면 승차할 때 안전손잡이 및 리프트 안전막으로 안전감과 하차시 리프트 안전막이 경사로 역할을 하여 안전하고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느낀점 : 장애인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 및 편의시설의 점검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수영장



차이점 : 우리나라 수영장은 대부분 비장애인 이용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느낀점 : 수영장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다.

기획편집 : 청소년장애인식개선학교 “함께여서 더+”
(진강고:이수민, 김예은, 명신고:정민기, 동명고:정은기, 경성대부설중:김한별, 김초롱별)
장애보다 능력을 먼저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인재가 보입니다.



유용 도시 생활 영위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독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세짱에 친구이고 2학년 1반 친구들에게 ♥



안녕! 후리 반!! 2학년 1반 부반장이야!! 꺄꺄 꺄꺄?? 아냐면 말구꺄꺄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후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공... ㅎ ㅎ

벌써 1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가 왔는데 1학기 동안 후리 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 무뚝뚝하지만 든든한 후리 반 담임선생님이신 조강래 선생님과 그 다음 후리 반 보스 반장 보경이랑 앞으로 남은 2학년 동안 예쁜 추억 함께 만들자~

조금 부족한 부반장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해!

그리고 3학년 올라가서도 졸업해서도 후리 연락하고 지내게!! 약속!! ㅎ ㅎ ㅎ ㅎ ㅎ

-from. 부반장

TO. 고맙고 미안한 수빈이에게



수빈이 많이 힘들었겠네.. 내가 생각하기에도 후리 뽕뽕 서로 서운한 맘만 생길 거 같아. 후리가 처음에 서로 잘 맞춰주고 배려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서 괜히 더 서운하고 신경쓰이고~ 나한테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느낀 것 같아...

후리 지금 이때는 서로 많이 서운하고 입기도 하겠지만... 후리가 이제 진짜 하나가 되려고 서로 하나 하나 맞추고 있나봐! 후리 같이 견디고 평생 권태기 못 느낄 정도로 사랑하자~ 알겠지?

-from.익명

TO. 영주 ㅎㅇ

문영주~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리 영주 참 많은 일들이 많았다.. 고생했어~ 후리 영주ㅠ ㅠ 영주 2학년 되고 학원에서 서로 이과반 같이 수업 듣다가 친해졌는데~ 20 쯤 좋아.. ㅎ

영주는 성격도 진짜 좋아서 너무너무 조타~ 해들한테는 완전 인기쟁이잖아~ 헤헤.. 나랑 같이 꼭 여행하자~ 영주야~ 하이스링크도 가고 여행하자~ 다~ 하하~ 그전에 영주집 또 놀러 가자~ ㅎ ㅎ ㅎ

사진 나한테 물어 볼때 하우도 닌줄 모르겠지.. 어려운데 좀 이만했다..ㅋㅋㅋㅋㅋㅋㅋ 여기 쓸 줄은 몰랐지~

영주야 후리 고2니까 수능때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수능 잘치고 좋은소식을 기대하며 연락 계속 하자! 영주랑 대학교 같이 다니고 싶지만 우리끼리? ㅠ ㅋㅋㅋㅋㅋㅋㅋ 멋진 문영주 짱 좋아함~ 내가 ㅋㅋ



아까는 친구중 한명이야~ 후리영주 ㅠ 망고생 항상 하는데 그런거 많이 신경쓰지말공 ㅠ ㅠ 영주한테 시켜주는 사람 내가 혼내주게!! ㅎ ㅎ

그럼 세짱에영주 후리 학원에서 보자~ 키키~ 사랑행~

-from.?

TO. 논논&암암

안녕 논논아~ 나는 덩이야 ㅋㅋㅋ 나네한테 편지같은 거 쓸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쓸 기회가 생겼으니 누님이 쓴다.



후글거리고 어색해도 읽어라. 후리가 알게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너네랑 나랑 알게된 지 엄청 오래된 느낌이다. 후리가 알게된 건 영계적인 사건 때문이지~ 만 나네를 알게 된 덕분에 평범했던 내 인생이 살짝 변한 것 같아..

소심하고 양전했던 내가 별 짓을 다 해보고, 해보고 싶었던 행동, 일들도 조금씩 해가는 중이고 많은 것을 알게되었지.. 내가 방에 다니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집앞까지 데려다주고, 고민상담도 해주고, 연락도 해주고, 내가 빠지거나 후를해지면 행복전도사가 소환되어서 기분 풀어주는 것도 고마웠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잘부탁한다..ㅋㅋㅋ

그럼 나는 이만!!

-FROM. 이쁘고 착한 덩이

안녕하세요 예고 음악과 선배님들 ㅎㅎ

경남예술고등학교 음악과에 재학중이었다가 진주여자고등학교로 전학 간 음악과 배이올린 전공 강타현입니다. 친구중에 필통이자가있어서 편지 써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생각이 나는게 예고친구들 선배님들이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네호... 공부는 공부대로~ 자신의 전공분야는 전공분야대로 스트레스를 빼고 더 받는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시합격.. 대학 다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저는 하쉽게도 타차막까지 같이 함께 하지는 못하였는데 한번 음악과는 영원하더라도 말해준 예고 3학년 신00호 감사드립니다.. ㅎ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곧... 고3이 될 친구들 항상 파이팅이다... 1학년 조재홍 담임선생님~ 이 글로부터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ㅎ 선배님 덕분에 1년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타차막까지 썸 달로 못나게 되어 죄송한 성균선생님 항상 사랑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노력한만큼 좋은 결과를 얻시길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남 예고 파이팅 ㅎ

이번 정기연주회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휴일날 나와서 몇시간동안 앉아서 불나는 연습도 같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같이 무대에 서지 못했



TO. 봉짱

친구야!! 후리가 말고 지낸지 벌써 6년째다... 내가 만날때마다 약올리고 놀리긴 하지만 그만큼 너 말도 잘들어 주고 해달라는건 다 해주잖아? 솔직히 뭐 해달란다고 바로 뛰어가는 남자친이 어딴지? 내가 맨날 놀리고 한건 이안하고 앞으로도 연락하고 같이 놀자... 대학생때는 또 그렇게 있겠지? 하~ 그리고 만날때마다 새 인맥 만들어 주서 고맙다..ㅋㅋㅋ 어떻게 맨날 달라지냐~ 지금껏 그랬듯이 계속 친구하자 (싫으면 하지 말든가...) 하~ 마지막으로 다른 남자친도 만들어 볼생각은 없니? 은근히 내가 시키는건 다 힘들거나 곤란하냐?

편지를 너무 오랜만에 써서 일기 싫어도 다 읽어라~ 기껏 써주는데 이거읽고 전화하진 말고 알았지? ^^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봉!~

-FROM. 봉짱 풀따구



To. 은진(타임이)

하이~! 내가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널 줄 상상에 못했는데~ 이 기회가 와서 나한테 써본다..^^

이번에 진짜 친하고 잘 맞는 친구 딱 만나서... 이제 즐겁게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할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가네 ㅋㅋㅋㅋ ㅠ ㅠ

장시 떨어져 있는 거지만.. 끝까지 잘 지내고 이 사이~ 후지하면서 즐겁게 놀자.. ㅎ 내가 놀러와서 나랑 겁나 신명나게 놀고 먹거리다니고 온전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할 계획 짜고 있네~ 꼭 놀러올생..

내가 내 사정 때문에 갑자기 떠나서 진짜 너무 미안하고.. 항상 고맙다~라부~

-From.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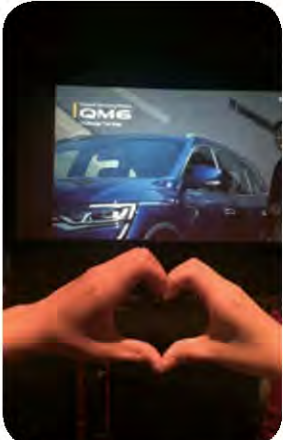
TO. 민경이~♥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쓰게 됐어!!~

내가 고백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사귀지 오래됐네.. ㅎ 사귀면서 힘든일이 많았는데~ 참고 내결에서 힘이 되어 주서 고마워~! 후리가 많이 사랑하고... 후리 헤어지지 말고 후리가자~

사랑해 민경이!!~

-FROM. 후리가



필통 청소년 팟캐스트 방송
‘청소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

현재까지 19편이 방송중,
2017년 새롭게 선보이는
주예진의 체인지 업과 함께 해주세요.



필통 청소년팟캐스트, '청소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떤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학생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해보는 공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교묘적인 잣대로 청담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입장과 생각을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사고로 편안하게 수다를 떨어보는 자유로운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방송이 흔하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른들 또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필통 팟캐스트 방송 '청소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2017년 주예진의 '채인지 업'으로 진주 청소년들을 찾아 갑니다.

필통판캐스트 듣는 방법

1. 필통 핏캐스트 전용 앱을 설치 한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후 다운)
2. 아이폰은 아이튠스에서 '필통' 검색후 구동.
3. 팟빵용 핏캐스트 검색앱을 다운 받고 '필통' 검색후 구동.
4. 컴퓨터에서는 팟빵사이트에서 검색 또는 필통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 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특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7년 9월 17일(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첨을 통해 25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23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 당첨도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간이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독으로 보내주시면 멋진 활용 무지 높은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호 로직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1등 : 문상 1만원권(2명) : 최원후(제일여고 1-4) / 김진식(명신고 3-8)
 2등 - 문상 5천원권(20명) : 이도훈(동명중 2-8) / 공미정(진명여중 1-3) / 최유진(진명여중 2-8) / 홍수지(진주중중 3-2) / 김진호(경진고 2-7) / 강수아(진서고 2-1) / 하지훈(동명고 1-10) / 연태호(동명고 3-10) / 남기민(중앙고 2-6) / 오세민(제일여고 2-9) / 이우진(제일여고 3-9) / 유지원(진강고 1-7) / 조수빈(진주여고 1-4) / 정선영(진주여고 3-9) / 박소현(삼현여고 2-9) / 정예은(삼현여고 3-8) / 임수영(대야고 2-11) / 구현우(진주고 1-6) / 장용하(명신고 2-1) / 최서민(사대부고 2-9)

청소년 여러분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더좋은 인쇄 & 디자인
The Good Printing & Web Design

055) 763-7630
gooddnp.com

더좋은 인쇄 & 디자인
The Good Printing & Web Design
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디자인!
 포스터, 전단, 리플렛 제작과 함께 제작된 인쇄물을 모바일기기에 맞게끔
웹용으로도 맞춤 제작해드립니다. 이제 쉽게 홍보하세요^^

- 명함
- 전단지
- 포스터
- 리플렛
- 팜플렛
- 카달로그
- 스티커
- 봉투
- 초대장
- 청첩장
- 쿠폰
- 티켓
- 판촉물
- 논문
- 감사패
- 현수막
- PPT 편집
- 출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 오픈마켓 디자인
- 카페 디자인
- 블로그 디자인
- 홈페이지배너
- 모바일광고전단

진주 장학신협은
필봉이 건전한 지역청소년문화를 만들기
가는데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제일식당

진주 최고의 맛과 신뢰를 자랑하는
제일식당이 청소년문화공동체 필봉을 후원합니다.

이도연 이미경 이미란 이미희 이민재 이민호 이병술 이상권 이상원 이상우 이상진 이상태 이수경 이양석 이여진 이영교 이영주 이화중 이용구 미용희 이우기 이육현 이우정 이윤자 미술경 이은영 이은결 이은영 이은주 이인자 이은주 이재석
 이재승 이재현 이재숙 이재옥 이정숙 이정련 이철후 이창희 이종원 이주미 이충서 이태수 이한진 이혜숙 이함숙 이현미 이혜영 이희숙 임갑성 임걸옥 임미경 임병선 임병재 임 서 일소정 임대래 전상록 정강우 정광국 정고운 정규만 정기섭
 정기복 정길만 정동국 정문수 정미자 정미영 정민정 정보라 정봉대 정석희 정성경 정세훈 정승민 정삼환 정연근 정원호 정영택 정영준 정예숙 정유정 정음학 정의환 정재호 정정환 정종관 정철하 정주환 정형태 정형숙 조경민 조남식 조미지 조미란 조복중 조복조 조성환 조수환 조영준 조원학 조은솔 조은수 조은희 조재진 조재선 조재우 조헌대 조한진 조희영 조두만 주선경 주정호 주희재 지미희 진해철 진옥순 진희열 진혜숙
 진호연 차령지 차영석 천규영 천수인 천윤명 최희미 최성일 최범기 최성대 최정환 최현주 최홍남 최영준 최유동 최유림 최유진 최이진 최지연 최지선 최정환 최현아 최현애 최형식 최효정 추수만 탁득성 편두연 하귀을 하병철 하복성 하우진 하재성 하준필 한기문 한민수 한영식 한현호 허귀을 허문복 허옥주 허윤정 허정림 홍신인 황규민 황성수 황수영 황친희 권영만 조연환 최윤희 서원영 문미야 강경화 김일식 진미경 서상석 김민정 최경희 장진숙 안재자 서명숙 최희경 조경환 김민수 이은경 김일식



한살림

한살림 경남은
필통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필독지정 배우처 | **(천전동)**글라스박스/채선당/제일좋은약국/소스책방/산철해어/초목마을/커피포트/공세상/칠암주민센터/녹원어린이집/진주남교회/크니크니/석윤호수학/동훈서점/신상록서점/소문난서점/신한생서점/커피뛰는(신안.광주.이현동)바람이불어오는곳/블라스음/황금알김장당/한빛약국/정안미소/신세계주영장/만리장성/사해방/오바/따이오/화가의정원/오구달/문배우서점/진주문고/배아허원/진주평화교회/아이쿱진주생활/안정현들라워/신보사적/기름/대아서점/여중문고/성지원(신내지역)제일안경원/동신교회/다원/죽향/대호김밥/송강식당/진주교회/포스타/포스타/문학당서점/여원/대양서적/메이지/필즈제자소/한양꽃집/WYCA/엘리트교복/학생사/교회사/디스커버리/노스페이스/극단현장/블랙야크/필라이아웃더/오프로드/노프레이크/오미요미/카جوی돈부리/술/박대출의원/보안경원(가호동)엘비씨네/진주문고/부에나비스타/윌치스/진주시민미디오센터(도동)진주시청/WYCA/상록사지관/진장도서관/하이아트/이노티안/세프랑/진주넛밭/닭그락/은행나무/교문서점/알뜰문구/하이프렌즈문구/드림문고/드림오피스(상봉.봉곡동)문학당서점, 형설서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곡동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기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